

2010 제46호

速記界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표지설명

100년 전 싹을 틔운 한국속기의 작은 씨앗이 무성하고 건강한 속기의 숲으로 자라고 또 자랍니다. 성장하고 호흡하며 내뿜는 나뭇잎의 싱그러운 내음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2010 速記界 46호

- 04 **머리말**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대한속기협회가 되기를 - 고흥길
- 06 **2009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 특집**
제47차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보고 - 국제부
베이징 인터스테노 참관기 - 안정근
2009 베이징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여기 - 최기예
제47회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를 다녀와서 - 이해정
- 32 **연구**
중국속기에 대하여 - 김점동
- 37 **기자수첩**
2010 국제기록문화전사회를 다녀와서 - 김나영 기자
조선조 기록문화의 꽃, 승정원일지 - 기자영 기자
- 50 **세미나**
첫 번째 속기학술세미나 - 류태문
- 54 **새의자**
신입사무관 연수를 다녀와서 - 박정자
- 62 **새내기 인사**
나는 문제 없어 - 김나미
옹크리고 있던 날개를 펴다 - 김밀알
잡초처럼 끈질기게! - 이성만
- 78 **회원동산**
알흠다운 두 가슴의 바운스 "Tango" - 재신지
인도여행기 - 지성숙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야기 - 박정현
- 100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식 송사 & 답사
- 108 **협회동정**
제43회 정기총회
협회 임원 및 기구표
편집후기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대한속기협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고흥길입니다.

작년에 인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는 김연아 선수 등 4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을 한 여러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국민들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던 반면 3월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들을 비탄에 빠지게 한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 6월에는 6·2 지방선거로 여러분들도 많이 바빴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드컵도 있을 예정이고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듯 말이지요.

작년에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에서 인터스테노 행사를 개최한 관계로 다른 해보다는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여느 해와 달리 속기경기대회에도 참여해서 각국의 속기사들과 경합을 벌였습니다.

인터스테노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속기 방식과 산업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세계 속기계의 동향을 알아 보고 교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교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

정보의 홍수와 변화의 시기에 있는 지금 ‘속기’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용도나 방법 또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우리 속기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습니다. 그것이 ‘정보화’ 라는 것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지면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데이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직접 보고 느끼는 것보다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터스테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람 간의 교류이고 보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 면에서 작년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 참여는 우리 속기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인터스테노를 계기로 중국에서 귀한 손님도 찾아오시고 해서 작년 베이징 인터스테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 옛날 고대 로마시대 때부터 시작된 속기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언어와 문자에 맞게끔 최적화시키고 그 나라의 수요에 맞게 발전시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변화의 시기에 있는 지금 ‘속기’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용도나 방법 또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우리 속기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와 교류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좀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곳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 항상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하는 속기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장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의 간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제 47차 INTERSTENO 총회

참가 보고 | 국제부

기간 2009년 8월 15일(토) ~ 8월 21일(금)

장소 중국 베이징

한국대표

이경식(협회 이사장, 국회) | 권영찬(협회 회원, 국회)

손숙자(협회 사업·회원이사, 국회) | 김은경(협회 회원, 국회)

이혜정(협회 국제부장, 국회) | 이화경(협회 회원, 수원시의회)

박진우(협회 회원, 해운대구의회)

그 외에 중국에 있는 황은화 회원과 속기경기대회 참가 및 부스 전시를 위하여 한국스테노에서, 그리고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여러 명의 회원이 참가함.

참가국 및 참가 인원

26개국 560여 명 참가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스위스, 카메룬, 중국, 체코,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솔로몬제도, 슬로바키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탄자니아, 영국, 미국 등

참가 목적

- 속기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할 우리의 방향 모색.
- 우리나라의 속기기계 전시 및 속기 방식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선진국의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이번에 처음으로 속기경기대회 중 스피치 캡처링과 리얼타임 부문에 참가하여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함.
- 우리나라 속기 및 회의록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

INTERSTENO 총회 일정

8월 15일(금) 1차 위원회(council)

총회 개회식

축하 행사

8월 16일(토) 전시회 오프닝

World championship in text production(원문 생산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Text corrections World championship(원문 교정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Professional word processing world championship

(프로급 문서처리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IPRS(의회속기사부) 모임

중국 속기경기대회 관련 시현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correspondence and minute-taking

(상업문·의사록 작성 경기)

World championship in multilingual short hand

(다국어 속기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8월 17일(월) World championship in speech capturing

(연설 캡처링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World championship in real time transcription

(리얼타임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World championship in multilingual shorthand

(다국어 속기 세계 챔피언 경기대회)

8월 18일(화) Youth's Day

속기 교육에 관한 국제 포럼

중국 속기협회와의 미팅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방문

8월 19일(수) 컨퍼런스 1차 회의

컨퍼런스 2차 회의

8월 20일(목) 2차 위원회(council)

총회(General Assembly)

3차 위원회(council)

각국의 속기 기술 전시

시상식

작별 만찬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 오프닝 행사(8월 15일)

총회에 참가한 참석자들 중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 자국 언어로 인사를 함. 우리 측에서는 이경식 이사장이 대표로 간단한 인사말을 했음.

• 속기경기대회(8월 16~17일)

중국은 이번 대회에 스피치 캡처링과 리얼타임 부문에 100명, 의사록 작성 경기대회에 75명이 참가하여 스피치 캡처링과 리얼타임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함으로써 개최국다운 면모를 과시함.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이니만큼 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경기대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어서 준비에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스피치 캡처링과 리얼타임 부문에 각각 7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함.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주어 우리나라 속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앞으로의 입상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음.

• 의회속기사부(IPRS) 모임(8월 16일)

전 네덜란드 의회 속기국장이자 명예의장으로 추대된 Cees Van Beurden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Fausto Romondelli 이탈리아 대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

이탈리아의 Fabrizio Verruso 회원이 시대 흐름에 따른 속기 방식의 변화, 음성인식시스템에 관하여 간단한 발표를 함.

이경식 협회 이사장이 우리나라의 속기 방법, 속기록 편집과 발간에 관한 규정, 원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직원 수, 신입 직원 선발과 훈련 방식, 새로운 속기 방법, 앞으로의 발전 계획 등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각국 의회 속기사들에게 설명함.

또한 각국 의회 속기사들이 우리나라의 이번 미디어법 사태와 관련하여 혼란 속에서 진행



된 그 회의 상황을 어떻게 속기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함.

•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방문(8월 18일)

NPC의 본회의장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이어서 아쉽지만 들어가 보지 못하고 상무위원회 회의를 방문하여 속기사석, 의장석, 위원석을 둘러보고 기타 다른 시설들을 둘러봄.

• 컨퍼런스 1·2차 회의(8월 1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회의 중 오전 회의에서 한양대학교 김한우 교수님께서 카스(CAS)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속기 현황 전반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2·3차 위원회, 총회 및 시상식(8월 20일)

예전의 중앙위원회였던 위원회 회의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렸는데 2차 위원회에서는 총회 개최지를 결정했고, 3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 위원회 모임을 결정함.

◎ 2010년 위원회(council)

장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시 : 2010년 10월 1~4일

◎ 2011년 인터스테노 총회

장 소 : 프랑스 파리

일 시 : 2011년 7월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파리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를 승인했으며, Gian Paolo Trivulzio(이탈리아, 회장), Jaroslav Zaviacic(체코, 부회장), Danny Devriendt(벨기에, 재정 담당), Rian Schwars van Poppel(네덜란드, 회원이며 IPRS 진행자), Mark Golden(미국,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에 대한 승인 투표가 있었음.

이어서 경기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Text production 일반 키보드 부문 시니어부 1위 : Recep Ertas(터키)

Text production 속기타자 부문 시니어부 1위 : Jiang Xi(중국)

Text correction 시니어부 1위 : Libor Hais(체코)

Professional word processing 시니어부 1위 : Stefanie Wiele(독일)

Shorthand/Speech capturing · Stenotype/Keyboard 시니어부 1위 : Wang Li(중국)

Real time transcription 시니어부 1위 : Wang Rui(중국)

Multilingual shorthand 시니어부 1위 : Petra Dischinger(독일)

성과

- 아시아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첫 총회를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함. 특히 중국, 일본 속기협회와의 향후 정기적 교류를 제안함.
- 인터스테노 경기대회 첫 참가에 의의
 - ▶ 국제 환경, 언어상의 문제로 인하여 첫 출전한 것이므로 수상은 못 하였으나 참가에 의의를 두고 차기 대회를 기약함.
 - ▶ 한글속기 자판 전시를 통한 홍보 효과
 - ▶ 중국 속기협회 측과 기계속기 자판 상호 교류
 - ▶ 중국 속기경기대회 시현회 관람

- IPRS(국제의회속기사부) Meeting 시 한국 의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속기업무 시스템에 관하여 주제 발표.
- ▶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의회 및 속기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글 속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인터스테노 지속적 참가로 인한 한국에 대한 위상 제고.
- ▶ 인터스테노 본부로부터 향후 한국의 비중 있는 역할을 당부받음.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IPRS 모임에서도 음성인식 시스템 얘기가 나왔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속기 방법과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음.

건의사항

- 유럽 위주의 인터스테노에서 점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한·중·일 삼국 간 정례적인 협의체 마련 필요성. 이번 총회에서 삼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향후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2009년 베이징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우리나라도 인터스테노 회원국으로서 총회나 IPRS Meeting을 개최해 봄으로써 한글속기의 신속성·정확성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회의 디지털회의장 시스템 등을 선보여 다른 어떤 의회 선진국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IT 강국의 면모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 최근 국내의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국고보조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속기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경비를 협회 예산에만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후원금을 얻는다든지 자비 부담을 좀더 늘려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 해마다 국제교류사업에 전담으로 한두 사람을 참가하게 해서 인터스테노 측 관련 동태 파악, 정보 획득 및 각국 집행진들과 우의를 다지도록 해야 함.
 - 국제속기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콘테스트 및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또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임.
- ▶ 2010년 Keyboarding contest by Internet(4~5월)
 - ▶ 2010년 Council meeting(9월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47차 INTERSTENO 총회



베이징 인터스테노 참관기

안정근 (한국CAS속기협회)

8월 15일 (토)

15일 토요일,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출발까지는 3시간 18분이 남아 있다.

이번 인터스테노 베이징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분주했지만 막상 출발 당일이 되니 오히려 무덤덤한 기분이 든다.

이런저런 상념을 하던 외중 어느새 5시가 되었다. 잠을 못 자 약간은 멍한 머리로 집을 나서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향하는 리무진에 몸을 실었다. 이른 새벽이라 도로는 별로 막히지 않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9시 25분, 드디어 하늘을 날다!

출발할 때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는 몇 번을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약 2시간의 비행 후 현지 시각 10시 40분 -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고 하였다 - 착륙 완료, 25명의

한국 대표단이 드디어 중국 베이징의 땅을 밟았다.

우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 이동하는 40여 분 동안 이번 대표단의 리더인 이경식 대한속기협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국가대표, 대한민국 속기인의 자긍심을 가집시다!”라는 말이 가슴에 남는다.

아직은 입에 맞지 않는 중국에서의 첫 식사를 마치고 오프닝 행사가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스포츠센터로 향했다. 총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각국 대표단의 소개가 이어졌다.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여 대한민국의 참가를 알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웬지 내 마음도 뿌듯해졌다.

오프닝이 끝난 후 나와 몇몇 일행은 센터 옆의 호텔 로비로 갔다. 내일 한국의 속기 기계와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8월 16일 (일)

새벽 6시, 나를 포함 부스팀 7명은 먼저 호텔에서 출발했다. 부스팀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오늘 아침 10시부터 있을 IPRS 미팅에 참석할 것이라 하였다.

회의장에 도착한 후 어제 보아둔 자리에 짐을 풀고 테이블을 끌어다가 기계들을 세팅한다. 중간에 인터넷 선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잘 해결되어 다시 분주하게 손을 놀린다. 오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중국인들은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와 일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우리 쪽에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국회의 손숙자 님이 있긴 했으나 한 사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애먼 가이드까지 불러와 사방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대답을 해야 했다.

어느새 폭풍과도 같은 3시간이 흘렀다.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다들 반쯤 낮이 나간 표정이다. 그때 즈음 IPRS 미팅을 마치고 내려온 일행들은 오후에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회원과

예술거리 관광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스팀은 총회 일정이 끝나는 6시까지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일행들을 보낸 후 남은 7명은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을 대하기 바빴다. 그래도 그쯤 되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제법 여유가 묻어났다. 현지에서 급하게 구한 중국인 통역사도 우리와 함께해서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저녁 식사는 「옥류관」이라는 북한 식당에서 했다. 요리는 맛있었고 쇼는 즐거웠으며 음악은 흥겨웠다. 컨디션만 평소 같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호텔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기진맥진한 뒤라 제대로 씻을 겨를도 없이 기절하듯 잠들고 말았다.

8월 17일 (월)

사흘째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우리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하루이다. 바로 세계속기경진대회가 있는 날.

한국 선수들은 연설 캡처링(World championship in speech capturing)과 실시간 속기(World championship in real time transcription) 두 종목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녹음 시설 문제로 연설 캡처링에만 출전하게 됐다.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국가대표' 선수 7명을 배웅한 부스팀은 어제의 자리로 돌아왔다. 원래는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한국에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대회 규정에 의해 카메라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체적인 행사장과 부스 현황을 방송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속기계의 원로와 교육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들은 유난히 한국의 속기기계(CASpro-M, CASplusⅢ)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도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국 고유의 속기 기계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한국, 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도 컴퓨터 속기를 하긴 하지만 미국의 기계를 그대로 들여와 쓰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여전히 2벌식 쿼티(QWERTY)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걸로 속기가 가능하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의외이기도 하였다.

이 궁금중은 터키의 한 속기사와 대화하면서 풀렸다. 그들은 2벌식 키보드를 치는 타법 자체가 달랐다. 그는 각 손가락의 세 관절을 모두 이용하여 마치 웨이브를 추듯 자판을 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로서는 그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그 외에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지면에 다 실지 못하는 게 유감이다. 그러나 제일 의외의 사실은 여전히 유럽에서는 컴퓨터 속기가 아닌 수필 속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름의 장단이 있겠으나 이미 한국에서는 많이 사장된 수필 속기, 그 문화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8월 18일 (화)

베이징에 온 지 나흘째 되는 화요일.

이날은 인터스테노 공식 일정으로 중국 인민대회당에 방문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것이라 하였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25개국 약 700명의 속기인들은 덕분에 보통 사람들은 접하지 못할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바로 중국 국회를 방문하는 것!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이런 관공서를 견학하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또 어렵다고 한다.

안내인을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 층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룹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뒤섞이고 말았다. 사실 내부는 한국의 국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몇 년 전 방문했던 일본 국회의사당하고도 비슷한 느낌.

우리 일행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분은 체코의 야로슬라브 속기협회 회장이었다. 전(前) 인터스테노 총회장을 역임했던 그분은 체코의 속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왔으며 특히 한국의 속기기계 CAS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베이징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메일로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세계 어디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을 기술력을 지닌 한국, 우리 속기는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8월 19일 (수)

오늘의 주요 일정은 회의와 관광.

오전에는 한양대 김한우 교수님이 한국 속기의 실상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고, 그 외 다른 일행들은 가볍게 관광을 할 예정이다. 기껏 중국까지 왔는데 적어도 만리장성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나.

새벽부터 내린 부슬비로 지면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리 미끄럽지는 않았다. 단지 성벽의 계단 경사가 제법 가팔라서 나중에는 거의 기다시피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높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중국에서 보낸 4박 5일 동안의 모든 배움과 감동을 글로 옮기려니 힘들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이곳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자랑스럽게 가슴 안에 품고 살고 싶다.

한국은 이번이 첫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였다. 그렇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았다. 그에 대한 반성을 발판으로 2011년 파리에서 열리는 48회 총회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2500명 모든 속기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 인터스테노 참관기



2009 베이징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여기 | 최기에 (주한국스테노 자막방송 팀장)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언론에 비친 그녀의 밝은 미소와 화려한 날갯짓을 보고 있노라면 저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해야 했을까, 올림픽을 앞두고 느꼈을 심적 초조함, 부담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곤 한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계올림픽과 비교하기에는 아주 작은 무대였지만 나의 “베이징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에의 도전 역시 내 인생에 있어서는 벽찬 감동과 희망, 그리고 큰 부담감과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2009년 8월 “베이징 인터스테노”를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국제속기경기 대표 선발을 겸한 국내속기경기 예선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나의 속기사로서의 삶을 중간평가해 보고 싶었던 터라 주저 없이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속기 기량을 시험해 볼 요량이었기에 ‘준결선 통과’ 정도를 목표로 가

법게 시작했으나 속기경기 또한 경쟁이자 승부인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욕심이 커져갔다. 더구나 세계 속기경기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근무가 끝나고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결국 최종 선발된 7명 속에 내 이름이 있었다. 마냥 기쁘고 행복했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확정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과연 나에게 한국의 속기사들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혹시 큰 무대에 너무 긴장하여 실수하면 어찌지……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은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를 내 삶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 멋진 도전을 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최면을 걸고 결전의 날을 위하여 연습에 매진했다.

드디어 2009년 8월, 모든 일상을 뒤로 한 채 가방 하나에 나의 모든 노력과 땀, 희망을 싸들고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간의 아낌없는 훈련을 무기로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대회에 임하자!

북경은 한국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아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말에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우리가 머무른 동안은 한국과 비슷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였다.

공항에 도착한 후 짐도 풀지 못한 채 바로 인터스테노 개막식장으로 향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세계 24개국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다들 속기인이라는 사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은근한 경쟁심이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해외에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국가별로 호명을 하면 각국 대표들이 중앙 무대에 나가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행자의 입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나오자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해 환호성을 질렀다. 다른 나라 속기인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긴 했지만 우린 서로 강한 동지애를 느끼며 흐뭇해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에는 인터스테노 현장에서 우리의 속기 장비인 CAS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짧은 소견으론 전시회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외국인들이 과연 관심을 가져 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담당자분들은 새벽부터 잠도 아껴가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리를 빌리고 부스를 설치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당황했다. 그곳에서는 벌써 다른 종목의 속기경기대회가 시작된 터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이 우리가 전시한 속기 키보드에 정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1 속기 시연 모습

속기 시연을 보이는 나에게 그들은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바빴다. 그들은 키보드를 눌러 보기도 하고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신기해했다.

속기를 하는 나라에는 다들 그 나라만의 속기장비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태반이었고 또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전시회는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세계의 속기인들에게 한국 컴퓨터속기를 알린 이번 전시회로 우리는 중국과 속기 키보드 교환식을 갖고 서로 상생하는 조인식을 갖게 됐다. 중국의 국영중앙방송인 CCTV에서 전시회에 출품된 한국의 속기 키보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가 전시회 하는 모습을 보고 주최국인 중국에서 부랴부랴 그 옆자리에 부스를 설치하느라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처음에 내가 전시회에 가졌던 의구심이 싹 가시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시장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 참 이상한 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속기'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서인지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가벼운 스킨십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꼭 그들과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꼭 끝 인사로는 "다음 인터스테노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물론 한국어로 말해서 그



↓ 속기경기대회 준비하는 모습

들이 알아들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특히 한국 속기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일본인이 기억에 남는다. 비록 언어 때문에 원활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으로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어 몇쩍은 미소와 함께 쥐어 주던 모습은 일본에 대한 기존 이미지마저 바꿔 놓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속기계 원로분들이 많았던 반면 우리 속기계 원로분들은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필속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실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많은 속기 선배님들이 이런 장에 함께 했다면 우리의 오래된 속기 역사를 세계에 좀더 멋지게 뽐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출전하는 종목의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 숙소에서 동료들과 수다도 떨고 평소보다 농담도 많이 하고 틈틈이 연습도 했다. 경기대회 당일 아침식사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된다. 사람은 뱃속이 든든해야 무슨 일든 잘 할 수 있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 따라서 말이다.

경기대회장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동그란 원탁으로 만들어진 책상에 키보드를 설치했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꽤 충분했고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신 분 역시 인상이 좋았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경기대회가 시작됐다. 먼 이국땅에서 한국어 낭독이 흘러나오니 기분이 묘했다.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한국에서 치렀던 예선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분씩 세 단락으로 나뉜 낭독을 받아치기 하고 수정시간을 거쳐 제출, 그 후 실시간속기가 이어졌다. 실시간속기 방식 역시 한국에서와 비슷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 졸여온 대회가 마침내 끝났다. 대회 직후의 느낌은 이 정도면 괜찮았지라는 생각과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반반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경기는 치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시상식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인터스테노 공식일정을 소화하면서 짹짹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만리장성이다.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그곳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벽돌을 날라 가며 쌓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다. 만리장성을 쌓다가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도 함께 벽돌 사이에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성벽을 따라 흐르는 세찬 바람에 은근히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다.

외국에 가면 음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한국화된 중국 음식이 많았고 또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너무 맛나게 먹어서 몸무게가 2kg 정도는 불어서 온 것 같다. 나의 왕성한 식욕은 때와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2009 베이징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여기

중국 측의 초청으로 전 국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에 가게 되었다. 입장할 때 짧은 반바지나 노출이 심한 옷, 슬리퍼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신발은 따로 싸 가지고 갔다.

전인대에 들어가서는 그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높다란 천장과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 벽에 걸려 있는 그림 하나하나까지 크기와 규모 면에서는 아마 세상 어느 건물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시상식과 폐회식이 있는 날이 밝았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나오라는 이사님의 전화에 '입상권에 들었나' 하는 기대감이 은근히 들었다.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우리는 분주한 행사 진행요원들의 틈을 파고들어 시상대 앞에 쪽 놓여 있는 메달을 목에 걸어보며 이 많은 메달 중 최소한 하나쯤은 한국의 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혹시 상을 못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며 시상식을 기다렸다. 부문별로 1, 2, 3위를 가리는 국가와 이름이 호명되고 마침내 우리가 출전한 부문의 순서가 돌아왔다. 그러나 ‘코리아’는 끝내 불리지 않았다.

결과를 보니 1위를 차지한 사람의 정확도가 100%였다. 정말 충격이었다. 이걸 충격이라는 말이외는 표현이 안 됐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긴 문장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맞춤법을 다 맞춰 가며 100%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속기사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띄어쓰기가 없는 나라도 있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경기대회를 치렀더라도 언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의 양도 달랐다고 한다. 같은 15분을 시험 봤어도 우리는 10장이 나왔다면 5장이 나온 국가도 있고 7장이 나온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언어적으로 분명 유리한 나라가 있을 것이고 불리한 나라도 생길 텐데 국제대회의 평가방식치곤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그때 나는 또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아야만 했다. 2위를 차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이었다. 스페인 속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자 부축을 받으며 시상대로 더듬더듬 오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꼭 내 머리를 뒤통이에 세계 언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는 ‘언어적인 차이’ 탓만 하며 평가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던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선물을 산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나왔지만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상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나 불공평한 평가방식에 대한 분노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그때그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며 살아 왔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면에 은근히 자리잡은 자만과 오만이 너무나 창피했다.

시상대에 오른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과 싸우며 노력했을까, 험난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땀 흘렸을까……

무거운 과제를 떠안겨 주었지만 이번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는 보다 성숙하고 겸손

해진, 제2의 나를 있게 한 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다시 한번 인터스테노에 도전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다해 준비하고, 당당히 맞서 도전하고, 그 자체를 즐겨야겠다. 이제 와 생각해 보면 폐막식 날 다른 나라 속기사들은 전통의상이나 드레스를 갖춰 입고 축제 분위기를 즐긴 반면 나는 너무 조바심치며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싶다.

다음에는 나도 우아한 한복을 갖춰 입고 세계의 속기사들과 시상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겠지만 자신은 있다. 속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쌓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스테노라는 값진 시간을 나에게 양보하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 47 회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를 다녀와서 | 이해정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전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과연 어떤 모임일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총회 기간 동안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며 몇 마디 적고자 이렇게 펜을 든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9시 25분, 드디어 우리 일행 24명을 실은 중국행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약 두어 시간 후인 중국 현지 시간 10시 40분 - 중국은 우리보다 1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시 40분이다 - 북경공항에 도착하였다. 벌써 공기의 내음이 우리나라와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총회가 열리는 북경올림픽스포츠센터에 도착하니 중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황은화 선배님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대회 관계자에게 중국어로 이것저것 물어 가면서 이름표 등등 총회 개막식 입장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셨다.

선배님은 총회 기간 동안 중국어 통역에서부터 길 안내 등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

배님!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린다.

개막식 입장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총회장으로 입장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속기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으니 중국 측의 총회 참가 환영 인사와 각국 대표들의 인사말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경식 대한속기협회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나가셔서 세계 유수의 여러 나라 속기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한껏 위상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개막식이 끝날 무렵에는 중국 전통무용과 검무 등으로 이루어진 멋진 축하공연이 있었다.

다음날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가 열렸는데 이는 여러 나라 의회 속기사들이 모여서 각국 의회의 속기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이탈리아 대표 Fausto Romondelli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는데 이탈리아의 Fabrizio Verruso 회원이 자신의 속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의 속기 방법과 오늘날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음성인식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직원 채용 방법, 번문 시간 등 우리 의회 속기 전반에 대하여 다른 나라 의회 속기사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일본, 아프리카, 네덜란드 등 외국 의회의 속기 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이 회의를 통해서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더 신속하게 의사록을 발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의사록의 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Fabrizio Verruso 회원이 자신의 속기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인식과 옛날의 수필속기 방법을 비교한 발표를 하였는데 앞으로의 속기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발표였다.

8월 17일 드디어 빅 데이(Big Day)다. 이번 총회 참가의 주 목적인 속기경기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기대회에 참관만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한걸음



| 외국 경기 참가자

더 나아가 아시아인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느니 만큼 경기대회에 선수들을 내보내기로 한 것이다. 스피치 캡처링(speech capturing)과 리얼타임(real time) 부문에 각각 7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스테노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번문하면서 시험 방법, 채점 지침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서 대회장으로 향하는 우리 일행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마도 경기대

회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으리라.

스피치 캡처링 대회가 먼저 열렸다. 대회장에 선수들이 각자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연습용 문제로 워밍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회장에 스피커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중국 사람 특유의 만만디 정신이 여기에서 발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중국 측의 준비 소홀로 우리는 다른 나라 선수들(러시아)이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스피커를 받아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더냐?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발된 우리 대표 7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치러진 경기대회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한껏 뽐냈다.

곧 이어서 리얼타임 대회가 치러졌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서 녹음해 간 시험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틀어 주면 듣고서 치는 방식이었는데 녹음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것이었다. 잡음이 심해서 듣고 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이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다니! 시험을 친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잘 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결국 논의 끝에 스피치 캡처링만 채점을 하기로 하고 리얼타임은 채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스피치 캡처링 채점 결과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입상권에는 들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는 꼭 입상하리라 믿는다.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열심히 임해 준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번 경기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처음 참가해서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커다란 진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대회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커다란 수확이다.

이렇게 하여 대회를 치르는 동시에 CAS속기협회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의 속기 기계와 기술에 대해 열띤 홍보를 하였다. 각 나라들은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속기 기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직접 앉아서 쳐 보기도 하고 작동 방법을 물어보는 등 아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CAS속기협회에서는 이 상황을 직접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하여 한국의 많은 기계속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날(8월 18일) 오전, 중국 사람들이 일생에 꼭 한번 오고 싶어 한다는 천안문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하였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중국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나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를 방문하여 중국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가졌다.

때마침 곧 비공개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위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여 위원장석에 앉아서 멋진 포즈도 한번 취해 보고 속기석에도 앉아 중국 속기기계를 직접 쳐볼 수 있는 행운도 누렸다.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속기사들도 함께 인민대회당을 방문하여 중국 의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숙소인 로얄킹 호텔로 돌아와서 행복한 꿈나라로.....

다음날(8월 19일) 오전, 한양대 김한우 교수님께서 CAS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속기 현황

전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 김한우 교수님은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시면서 우리 속 기계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더 나은 미래의 속기계를 위해서 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음성인식 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

한편 나머지 우리 일행들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와중에 버스를 타고 만리장성을 보러 갔다. 비도 오고 차도 막히고 해서 만리장성을 포기하고 다음 코스인 명 13릉을 보러갈까 했는데 다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 보자는 의견이어서 가기로 했다.

다행히 만리장성 입구에 도착하니 비가 그쳤고 만리장성 주변의 탁 트인 시원한 광경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위로 쪽쪽 뻗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본 만리장성은 그야말로 장관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갓 결혼한 어여쁜 신부가 그 곱고 화려하지만 산을 오르기에는 거추장스런 웨딩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정도니 할 말 다했지 않은가.

만리장성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뒤에 펼쳐진 탁 트인 시원한 장관을 배경으로 온갖 포즈를 다 취해 가며 다들 잊지 못할 추억 한 컷씩을 가슴속에 담았다.

순간 아차!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발표를 위해 선뜻 접어 주신 김한우 교수님 생각이 났고 무척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나머지 일정에 참가할 7명을 남겨 놓고 나머지 일행은 북경공항으로 이동하여 한 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중국에 남은 나머지 일행은 마지막 날 총회에서 이사회(Board) 구성에 대한 승인 투표를 했으며 중국과의 속기기계 교환식을 가짐으로써 대회 참가를 더욱 뜻 깊게 했다.

8월 21일 드디어 우리 일행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총회 참가를 마치고 귀국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갔다 온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가서 실수하지 않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이번에 처음 총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설렘을 반반씩 마음에 담고 참가했던 이번 총회는 속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속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각 나라의 속기 현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렵듯이나마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참가하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행운이자 영광이었다.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감사 안아 주신 모든 분들과 대회 참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 북경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것이 활력소가 되어 더욱더 성숙된 속기인의 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제47회 베이징 인터스테노 총회를 다녀와서

중 국 속 기 에 대 하 여

김점동(협회이사)

중국은 북경시속기협회(이사장 탕커량 唐可亮)의 주도로 2009년 세계 속기인의 축제인 인터스테노 총회 및 속기경기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1887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되던 이 행사를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속기경기대회에서도 성공적인 성적을 냄으로써 중국 속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속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994년 탕야웨이(唐亞偉)가 개발한 “야웨이속록(亞偉速錄)” 기계를 내세운 중국의 속기는 2009년 북경 인터스테노 총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탕야웨이는 수필속기인 “야웨이속기(亞偉速記)”를 창안하여 보급하다 속기기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중국 속기 “속우”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야웨이중문속록기 건반 평면도

1994년, 10여 년의 탐구를 거쳐 당아웨이 교수는 마침내 중문속록기를 성공적으로 발명해 내 “아웨이중문속록기^{亞中文速錄機}”라고 명명하게 된다. 독자적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특허를 획득한 아웨이중문속록기는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다.



연구개발단계의 중문속록기 모형

전용자판, 여러 건반을 한번에 모아치다.

아웨이중문속록기는 여러 건반을 함께 모아치는 기술원리로서 거울에 형상이 대칭하는 것과 같은 전용자판과 전용부호를 발명했다. 여러 건반을 모아치는 것은 바로 여러 손가락을 사용하여 여러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며, 한 손으로 건반을 한번 누르면 바로 성운^{聲韻} 조합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전음절^{全音節} 부호 입력이 된다. 두 손으로 동시에 한번 모아 누르면 바로 두 개의 한자 입력을 완성할 수 있다. 여러 건반 모아치기는 표준자판의 한 건반 한 번 치기라는 설계 이념을 타파했으며, 빠른 한자 입력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아웨이중문속록기A형

아웨이중문속록기III형

아웨이중문속록기III형

상무형무성속록기

어음반려



아웨이부호

아웨이부호는 빠른 한자 입력을 실현하는 기본 중의 하나이며, 탕아웨이 교수는 자신의 70년 속기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여러 건반 모아치기” 원리를 결합하였다. 단지 12개 건반자리를 사용해 21개 소리부호, 34개 운모부호 및 그것으로 조합한 300여 개 음절부호를 만들어냈으며, 모든 한자를 입력할 수 있는 411개 아웨이부호 설계도를 완성했다. 이 설계도는 “한어병음 설계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학습의 어려움을 낮추었다.

기타 기술혁신

여러 건반 모아치기, 전용자판과 전용부호의 기초 위에서 아웨이속록기는 또한 특수부호, 생략부호, 자기정의부호, 접속사 삭제 등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한어동음(漢語同音) 글자 단어의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난관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입력 속도를 더욱 높여 일치적으로 스크린에 입력되어 나오는 글자의 정확도를 99% 이상 다다르게 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였다.

또한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과학 연구 성과를 모아, 전용 컴퓨터의 동시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유일무이한 두 개의 커서(cursor) 설계를 채용하였다. 입력과 교정 작업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한다.

아웨이중문속록기는 또한 두 대의 기계를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발명했으며, 두 대 속록기는 동일 접속기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고 동시에 작업을 하며 임의로 재빠르게 설치하고 인계할 수 있다.

이상의 기술적 특징은 완전히 한자(漢字), 한어병음(漢語拼音)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은 영어 등 표음문자의 속록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아웨이중문속록기는 한 손을 사용하여 “모든 한자 입력 기술”, “두 개 커서 기술”, “두 대의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기술” 등을 완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계 몸체가 작고 깜찍하며 편리한 것이 특징이어서 세계속록과 학기술 영역에서 선두에 서 있다.

2005년 7월, 제45회 세계속기연합대회에서 아웨이중문속록기가 그 면모를 드러내자 세계속록계, 동종 업계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2007년 6월, 미국 법정속록시험회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그들은 중문속록기 특유의 기술에 높은 평가를 내렸고, 또한 교류하는 가운데 미국속록기가 편리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속기 퍼포먼스-기네스북에 등재

2007년 7월 7일, “얼음도시” 하얼빈은 뜨거운 여름 날 전에 없던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속록교육 기지의 한 곳인 하얼빈 복성교육(福醒教育)은 200명 속록 고수를 꾸려, 단체속록인 수가 가장 많은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했다. 기차역 앞 광장은 마치 다양한 색채의 무리가 바다를 이룬 것 같았다.



200명 속록 학생은 다섯 조로 나눠 빨강, 노랑, 남색, 녹색, 검정색 다섯 색깔 옷을 입고, 올림픽 오륜 조형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더욱이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그들 손에 있는 비밀무기, 아웨이중문속록기이다. 200대 속록기는 처음으로 흥, 황, 남, 녹, 흑 다섯 색깔 진형으로 출현했고 태양이 내리쬐는 아래에서 특별히 눈부셨다.



시작 명령 지위하에, 전체 광장은 동시에 속록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으며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확히 기록하였고, 속록기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과 흥분을 하기에 충분했으며, 마치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것과 같았다. 선수들 개개인은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마치 휘젓는 것과 같은 열 손가락 위에 집중하였다.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은 눈앞의 이 거대한 진용에 놀랐으며,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춰 광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색찬란한 200명 속록대집회는 많은 매체의 관심을 불러모았는데 홍콩강텔레비전, 하얼빈텔레비전, 신석간신문, 중국디지털텔레비전 등, 촬영, 사진, 기록, 촬영기사, 촬영기자, 문자기록, 사회자, 조명기사가 현장에서 매우 분주했다. 매체는 전에 없던 열정과

관심으로 중국속록의 성대한 일로 보도하고 있었다.

당시 “2007년 중국하얼빈국제교육전” 기간을 맞아 많은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육 매체들도 매료돼 지켜보았으며, 당일 상해 세계기네스총부는 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감독을 진행하였다.

2007년 7월 7일, 중국 200명은 동시에 분당 200자의 속도로 속록 기능을 펼쳐 보였다. 이것은 세계에서 첫 번째이며 이 숫자들은 “중국속록”과 함께 또한 세계에 기억될 것이다.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다녀와서

김나영기자

작년에 협회 홍보부에 발을 담그고 기자의 신분으로 처음 방문했던 곳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이었다. 사진도 찍고 자료도 찾아 가며 그곳에 관한 글을 열심히 썼었는데, 무슨 인연인지 올해에도 국가기록원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주최한 국제기록문화전시회에 방문하고 글도 쓰게 되었다.

우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록’이라는 테마는 올해도 어김없이 속기계 한 권을 차지한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7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 일류 기록국가라 할 만한 기록 전통을 갖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빛나는 기록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기록문화전시회가 2007년부터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드디어 2010년 6월, 대한민국의 기록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최첨단 기록관리 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질 국제기록문화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전시 첫날부터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기자들이 서울 코엑스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록전, 체험전, 기록관리산업전, 국제회의의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기자들이 중점을 두고 본 것은 바로 기록전, 기록전도 크게 세계기록유산관과 국제기록관, 대한민국기록관으로 세분되어 있었다. 이 기록전을 중심으로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진작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과 팔만대장경 원판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배경지식이라도 쌓아서 왔다면 좀더 와 닿고 흥미로웠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입구로 들어가면 좌우에 사진으로 전시회의 기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큰 흐름을 파악한 뒤에 본격적인 전시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 아이들도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구를 통과하니 먼저 세계기록유산관으로 연결됐다. 세계기록유산 중 약 100여 점을 선별해서 전시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정말 방대해서 사실은 생소한 기록물들도 많았다.

세계기록유산관에 전시된 기록물들을 소개한다.

	주요기록물
세계기록유산관	팔만대장경, 구텐베르크 성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직지 등 브람스 컬렉션, 베토벤 교향곡 9번, 쇼팽 걸작선 등 존 마샬의 부쉬맨 필름, 드골 대국민 호소, 다이누 스카피츠 전래민요 등 그림형제 동화 컬렉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록물, 안데르센 원고 등 동의보감, 베르겐 한센병 기록, 중세의약 필사본, 타밀의학 필사본 등 마그나 카르타, 여성참정권 청원서, 벨슨 만델라 재판기록 등 수에즈운하, 아문센 남극탐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물 등 루미에르형제 영화필름, 노먼 맥플라렌의 이웃, 메트로폴리스 등 훈민정음 해례본, 헝가리 과학원 도서관의 피뢰시 초머 산도르 기록 등 라디오스코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운행에 관한 육서」, 니콜라테슬라 기록, 노벨가 기록물 등 제임스 쿡 항해일지, 키에르 케고르 기록, 포르투갈 신대륙 발견 필사본 모 음집 등

우리나라의 세계기록문화유산 하면 생각나는 것은 단연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유구한 세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고 몇 차례 화재에도 불가사의하게 화를 입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팔만대장경이 해인사를 잠시 떠나 서울로 소풍을 왔다.



팔만대장경 원본

이번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만 6000만 원 이상이라는 정말 보기 힘든 문화유산,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 이번 전시회의 명실상부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 성경은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한 쪽에 42줄로 인쇄가 되어 있어 42줄 성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직지심체요절이 인정되기 전까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뛰어난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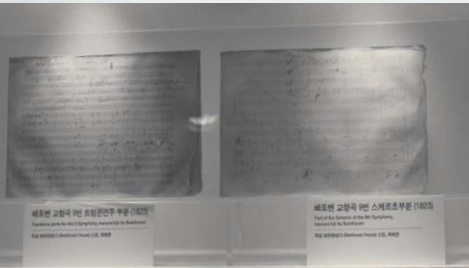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

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의궤, 그림형제 동화 컬렉션, 동의보감 등이 이번 전시회에서 원본 기록물로 전시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기록이라 불리는 승정원일기는 뒤에 연결되는 기자스케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브람스, 베토벤, 쇼팽 등의 작품과 영화 필름 등 약 20여 점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직접 보고 듣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눈과 귀가 모두 만족스러운 이곳 전시장!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베토벤의 세계로 빠지신 박정현 홍보부장님과 베토벤교향곡 9번 실제 원본 악보

어느새 국제기록관으로 넘어간다. 국제기록관이라고 해 봐야 몇 나라 정도였지 했던 생각은 가차없이 빛나가고, 봐도 봐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물들이 나라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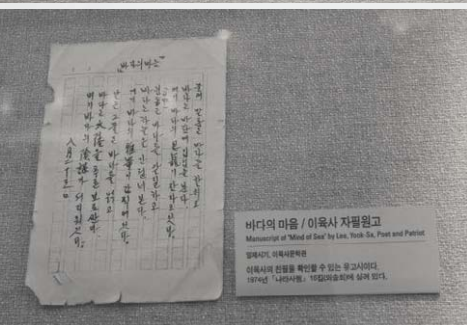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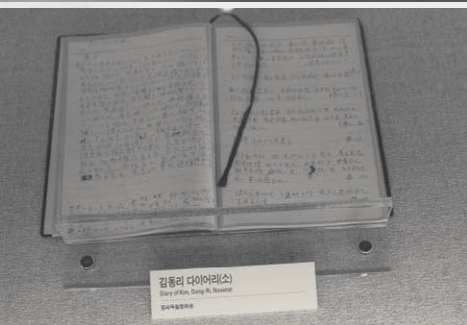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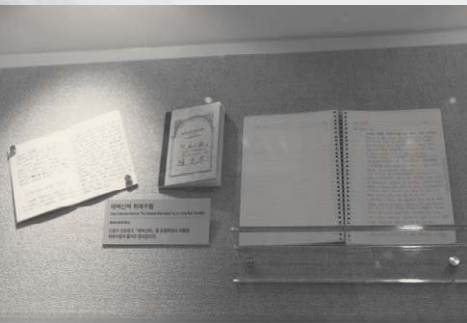
대륙별로 소개하자면 유엔을 비롯해 유럽에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헝가리 스웨덴 불가리아, 미주에는 미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오세아니아에는 호주,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9개국이다.

해당 국가의 대표적 기록물과 각국이 소장한 대표적인 한국 관련 기록물들이 무려 400여 점 넘게 전시되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푸짐(?)한 규모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대한민국기록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기록 전통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을 선별해 전시해 놓았다. 전시물들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증명되는 듯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의 역동적인 성장 과정이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여러 가지 기록물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다.

		주요 기록물
대한민국 기록관	광복/건국 경제개발 사회/교육	조선독립 염원 태극기, 전쟁배라 등 원조밀가루 포대, 한국경제부흥계획서, 새마을운동 기록 등 자연보호, 가정의례 준칙, 혼분식 장려, 가족계획, 문명퇴치 등
	통일/민주화 문화/복지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등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김연아 금메달, 한류산업 지원 등
	영상관 해외한인	장날풍경, 혼분식, 산림녹화, 2002월드컵 등 대한제국 여권, 광복군 신분증, 파독 광부 기념사진, 재외동포법 등
	만화 선거 방송/영화	고바우영감, 엄마찾아 삼만리, 홍길동, 코주부 삼국지 등 선거 벽보, 공보물 등 선거 관련 기록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피아골 등 시나리오, 수사반장 등 방송 대본
	금융 표어/포스터 일기/기상 엽서 우표	통장, 증권류, 복권, 화폐 등 금융 관련 자료 각종 계몽 표어·포스터 난중일기, 백범일지, 도산 안창호 일기, 윤봉길 일기 등 일기도, 기상 통계자료 등 최초의 우표 등, 각종 우표·엽서 원도·원화 등
	교육	개화기1950년대 각종 교과서, 참고서, 방학책, 졸업앨범 등 이육사·박경리 등 자필원고, 박목월·김동리·조정래 수첩 등
	원고/ 잡지 춤	소년 한반도·별나라 등 잡지 공연사진 및 각종 춤/무용 공연 포스터 등



조정래 태백산맥 취재수첩
 김동리 다이어리
 이육사 자필원고

그뿐 아니라 단순히 공공 및 민간 아카이브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기록물들도 모두 망라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난중일기 원본부터 시작해서 이육사 님과 박경리 님의 자필원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영화 시나리오, 대한민국 언론 사상 최장기 연재기록을 가진 고바우영감 원고까지!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을 추억의 타임머신으로 안내할 기록물들을 소개하자면 시대별 학교 교과서와 교복, 역대 선거 관련 표어 및 포스터, 화폐 및 복권류, 그 외에 명세서, 승차권, 최초의 일기도 등 온갖 기록이란 기록들은 다 전시되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방문했던 나라기록관에는 각종 기록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보존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국제기록문화전시회에서는 그러한 환경과 방법으로 보존되고 복원된 기록물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책기록문화전시회

International Archival Culture Exhibition 2010, Korea



글동무 창간호
세마을운동 관련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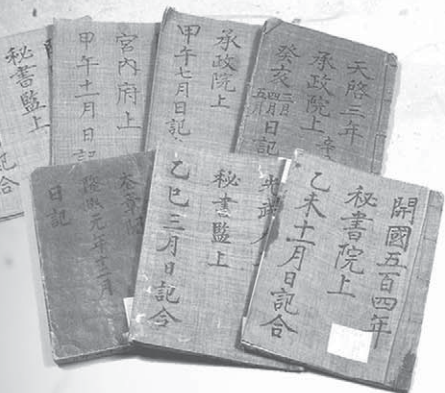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 금메달
각종 표어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현재 속에는 미래가 있으며 그래서 미래는 바로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록물 하나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해 준 전시회였다.

조선조 기록문화의 꽃, 승정원일기

기자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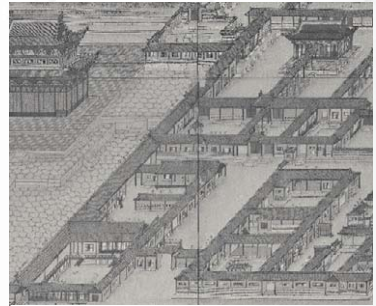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있다. 속기사가 참여하는 기록들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간의 기록들을 남긴다. 문명이 발달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도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 음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 영상으로 남기는 방식 등으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옛날에는 문자로 기록하는 것만이 유일했다.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이외에 각종 기록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일성록을 비롯해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들 기록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과 기록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승정원일기야말로 조선조 기록문화의 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승정원일기는 비록 승정원이라는 개별 관청의 기록이지만 내용의 자세함과 규모의 방대함에서 다른 기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승정원일기는 왕명을 출납하던 국왕 비서실의 일기이다. 왕명 출납은 물론이요 국왕에게 보고되고 처리된 모든 일들과 의례적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으며 국정 논의 현장에 대한 기록 또한 수록되었다. 가히 오늘날 국회 회의록이나 다를 바 없다. 마치 현장 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승정원일기가 지닌 매력이다.

승정원일기의 산실, 승정원

승정원이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한다. 승정원에는 오늘날 비서실장격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이를 통칭 6승지라 부른다. 그리고 모두 같은 품계인 정3품 당상관이었다. 6승지 아래에는 정7품 주서 2인이 있다. 통상 6승지는 분방^{分房}, 즉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승지가 이방, 좌승지가 호방, 우승지가 예방, 좌부승지가 병방, 우부승지가 형방, 동부승지가 공방 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는 당시 중앙부처 업무분담이 크게 6조로 나누어져 있었고 경국대전 구성에서도 6전 체제로 되어 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오늘날 대통령비서실과 행정부의 유기적 기능들과 동일한 시스템이었다.



승정원 전경

승정원 소속 관원 가운데 승정원일기 작성과 관련된 관직이 주서이다. 주서는 예문관 소속의 사관과 함께 임금과 신하들이 만날 때 반드시 배석하여 그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말하자면 속기록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속기록의 어려움이란 도처에 깔려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서를 뽑을 때는 문과 급제자 중에서도 웅문속필^{雄文速筆}을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선발했고 승

진에 있어 특혜를 주기도 했다.

주서는 매일 국왕이 정사를 보는 앞에서 사관과 함께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메모한 초책(草冊·속기록)을 하루치씩 하변주서(下番注書)에게 정서하게 하고, 상소(上疏)나 서계(書啓)와 같은 문자로 된 문건은 서리에게 베끼게 했다. 주서들은 일종의 속기록 장부였던 본초책을 지참하고 다니며 초책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재빨리 기록하거나 다 받아 적기 어려우면 대강의 메모 후 기억을 되살려 적기도 했다. 그래서 초책과 상소나 서계를 베낀 문건을 합쳐서 그날의 일기가 만들어지고 한 달 또는 반 달치씩 묶어 표지에 연월일을 적어 승지에게 제출하여 승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두 책으로 나누었으며 윤달의 일기는 따로 성책하였다.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개수

승정원일기의 수록 내용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정형화시켜 보면

- ① 날짜, 간지, 날씨
- ② 각방 승지의 좌목(참석여부 명단)과 주서 성명
- ③ 대전·중전·대비전·왕세자전에 대한 약방의 문안 및 입진(진찰) 기사
- ④ 각방 승지가 각조나 각사의 보고를 받아 임금에게 올린 계사(啓辭)¹⁾·계목(啓目)²⁾·첩보(諜報)³⁾와 그에 대한 임금의 처리 내용을 담은 전교(傳敎)⁴⁾ 및 비망기 교서 등
- ⑤ 이·병조의 인사행정 관련 내용

1)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글.
 2) 조선시대에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의 하나. 주로 작은 일을 계할 때 썼다.
 3) 첩보(諜報)
 4)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 하교(下敎)

⑥ 관인이나 유생의 상소 및 지방관의 장계와 그에 대한 비답^{批答}·전유^傳

諭⁶⁾·하유^(下諭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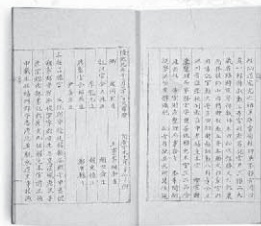
⑦ 기타 임금에게 보고되는 사항들, 예컨대 사은숙배^{謝恩肅拜}⁸⁾ 등

⑧ 임금의 거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사

⑨ 신료 접견 관련 사항들, 예컨대 경연 약방 상참 윤대 유생건강 등으로 정리된다.

승정원일기는 4대 사고에 분산 비치된 실록과 달리 궐내 승정원에 한 부만이 비치되었기에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 실제 화재 등으로 몇 차례 개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고 이후 인조 2년에 발생한 이괄의 난 때 다시 한번 소실되었으며 병자호란 때도 또 한 차례 많은 분량이 소실되어 대체로 선조대부터 개수가 이루어졌다. 인조대 이후 그나마 보존되던 승정원일기는 영조 20년 10월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영조 20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창덕궁 인정문의 화재가 일기의 소실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도세자가



승정원일기 원문

5) 임금이 상주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의 대답 ≒ 비(批)

6) 임금의 명령을 의정(議政) 또는 유헌(儒賢)에게 전하던 일

7) 임금이 지방 벼슬아치에게 서울에 올라오도록 내리던 명령

8) 예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던 일 ≒ 사은숙사

참변을 당한 임오화변 이후 세자의 지위에 있던 후일의 정조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사 내용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가치

승정원일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다. 국정 운영상 전례를 찾을 때는 으레 승정원일기를 참고하였고 실록 편찬을 위한 시정기찬집이나 비변사등록 작성에도 제일 큰 참고자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문집을 낼 때 필요한 자료로 뽑아 쓸 정도로 승정원일기는 널리 애용되었다.

실록은 사건이 있는 후에 얻어진 결과를 놓고 그 과정을 재구성하는 기록이다. 이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대에 따라 차례로 기록한 것이니 역사적 진실개입에 있어 이보다 자료적 효용 가치가 큰 경우는 없다.

일기의 가장 큰 가치는 방대함과 자세함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조선 전기 부분은 남아 있지 않지만 3245책에 적힌 2억 5000만 자라는 놀라운 분량은 조선시대 전체를 포괄한 실록보다 5배 이상 많으며 중국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기록물이라는 명실록(2964책, 1600만 자)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그 자세함이다. 승정원의 주서들은 대궐 안에서는 물론 책상 앞에서 국왕의 언행을 비교적 편안하게 기록할 수 있었지만 꺾 밖 행차 시에도 붓과 종이를 휴대해 수행함으로써 '임금의 모든 행동은 은폐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한다'는 동양의 기록정신을 모범적으로 재현했다. 다만, 승정원일기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인조에서 경종 원년까지 기사라든지 임오화변 관련 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지금의 국회 회의록의 작성 요령이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데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실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속기사의 임무이다. 사실의 기록은 당시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역사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승경원일기

종 목 국보 제303호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일기류

수 량 3,243책

지정일 1999. 04. 09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규장각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 서울대학교규장각

관리자 서울대학교

출처 : 문화재청

첫 번째 속기학술세미나

류태문

국회에 입사한 지도 벌써 1년, 작년에는 신입교육으로 인해 가지 못했던 속기학술세미나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도 막중한 임무를 맡은 선발대로……

1년이란 시간의 흐름으로 항상 꿈꿔 왔던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있던 찰나 이번 첫 세미나는 '아, 내가 지금 나의 꿈이었던 국회에서 일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선발대는 세미나 전날인 목요일 점심쯤 출발했다. 평일 출근 시간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학교에 가는 대학생처럼 비춰졌는지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나에게 ‘학생, 여기 공군회관이 어디야?’ 라는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내일모레 서른을 바라보는 나에게 어여쁜 아가씨의 음성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울려서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출근 후 구내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전날 미리 사 두었던 세미나 준비물들을 차에 싣고 선발대 선배님들과 드디어 목적지인 덕산 스파캐슬로 출발했다. 평일 오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간다는 것이 꼭 대학시절 MT를 가는 것처럼 나를 설레고 들뜨게 만들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방에 짐을 풀어 놓고 바로 다음날 세미나가 열리게 될 회의를 둘러보았다. 선배님들은 세미나 선발대로서 또 속기협회 사업부로서 모든 일정을 일사천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를 하셨다. 거기에 맞춰 아무 것도 모르는, 아직 서투른 햇병아리인 나는 선배님들의 지시를 잘 따르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면서 선발대로서의 임무에 충신했다.

둘째 날,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오후에 도착하실 분들 맞이할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당일 선발대 선배님들도 오전에 도착해 같이 합류해서 회의장 앞에 안내부스를 세팅하고, 남자들은 역시나 몸 쓰는 일—수레를 끌고 다니며 각 방에 물 집어넣기,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각종 짐 옮기기 등 분주히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도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깐 일반 손님들도 우리를 스파캐슬 직원으로 착각하셨는지 약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산책할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



오후 3시쯤 국회와 각 지방의회 속기사, 자막방송 직원 등 많은 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바로 세미나의 첫 일정은 시작되었다.

전국에 있는 속기사 선배님들과 원로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부를 물으며 속기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뜻 깊은 장이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협회간부 소개로 시작되어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에 관한 강의, 박현오 교수의 '한국문화의 힘과 세종의 창조 리더십'에 관한 강의 등 속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양을 쌓게 해 주는 명강의가 이어졌다.

1부 행사가 끝이 나고 2부 행사로 저녁식사 및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 뷔페 연회장으로 장소를 이동했다. 1부 행사는 다소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2부 행사는 그야말로 음주가무의 시간,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료 속기사 및 지인분들과 정을 나누며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 지방의회에서 손수 가지고 온 여러 토속주들을 함께 마시면서 미리 준비해 오신 분들의 장기자랑을 관람했다. 밸리댄스, 비트박스 등 속기인들의 넘치는 끼는 역시 대단했다.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에 맞춰 모두가 함께했던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선후배, 국회·의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게임을 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었던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2부 순서까지 모두 마친 후 세미나의 밤을 그냥 보낼 수 없기에 방으로 돌아가서도 그 열기는 계속됐다. 각 방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의 이야기꽃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세미나의 밤은 깊어만 갔다.



다음날 역시 일어나자마자 남은 짐을 정리하고 옮기느라 분주했다. 짐을 옮기느라 씻지도 못한 터라 샤워를 하고 체크아웃을 준비하는 동안 벌써 다른 분들은 단체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인 수덕사로 출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선배의 차를 타고 수덕사로 향했다. 늦게 도착을 해서 수덕사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화창한 날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인 점심식사, 메뉴는 '더덕구이 정식'이었다. 역시 밥은 나와서 먹는 게 맛있다고 여러 나물들과 메밀전, 더덕구이는 밤새 음주를 했던 나에게 또 한번의 음주 유혹을 불러왔지만 몸을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끝으로 2009년 속기학술세미나 일정도 모두 끝이 났다.

국회에 입사해 처음 오게 된 이번 세미나, 전국에서 속기사로서의 역할에 항상 매진하시는 선배님들과 우리 속기계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협회 관계자분들, 또 원로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세미나의 묘미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 내가 속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데 대해 또 한번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첫 세미나에 선발대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회원이 되고 싶다. 벌써부터 내년 세미나가 기다려진다. ^^



신임사무관 연수를 다녀와서

박정자

글 쓰는 재주라고는 없고 써 본 적도 없는 내게
신임사무관이 되면 속기계에 글을 써 온 것이 관례라면서 원고 청탁을 한다.
무거운 몸의 후배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승낙을 하긴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하나 하는데 승진시험 발표하던 날이 떠올랐다.
사무관으로 승진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사람들……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했듯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얼굴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7, 8년 늦게 입사한 터라 승진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나,
그런 나에게 나도 사무관이 되어야겠다는 용기(?)를 갖게 해 준
주위의 분들께 감사하고, 나를 믿어 주고 밀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한다.
특히 힘들 때 조용히 찾아와서 손을 잡아 주던 모든 이들에게 짧은 글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신문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든 나 또한 유럽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을 후배와 이야기하듯 적으려고 한다.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6박 8일 동안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동유럽을 다녀왔다. 우리는 흔히 동유럽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중유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체코*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은 서부의 보헤미아(수도 프라하가 있는 지역)와 동부의 모라비아(중심지는 브르노)로 구분되는데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을 받지 않아 부다페스트, 바르샤바보다도 훨씬 더 고색창연한 유럽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볼타바강(몰다우강)이 시내를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 한가운대를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그 강 주변으로 고풍스런 건물들과 다리들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프라하는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고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건축양식은 감탄을 자아낸다. 프라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프라하성의 건축양식은 너무 아름답고 어느 곳을 사진에 담아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것만 같았다.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탄 듯한 것은 사암으로 지어져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원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프라하를 선정해서 드라마를 제작했고 그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하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 프라하 직항이 생기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프라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프라하성

프라하에 오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른다는 카를교, 12세기에 목재교가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강이 범람할 때 붕괴되어 12세기 중엽에 석재교로 대체되었는데 이 또한 강물로 인해 붕괴되어 1357년 카를 4세 때 다시 건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다리中间的 조각상 중 손으로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줄지어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마음속의 염원을 담아 정성껏 손을 내밀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폴란드

제일 먼저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우슈비츠가 있는 곳으로 연상되는 폴란드, 쇼팽과 코페르니쿠스, 퀴리부인, 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헝가리나 체코만큼 개방적이지는 않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한 번은

가 봐야 할 곳 같았다. 말로만 듣고 느꼈던 것과는 너무 괴리가 큰, 상상을 초월하는 학살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곳이었다.

헝가리는 공식적으로는 유로화가 유통된다고는 하지만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슨 유로화를 쓰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즐로티와 그로쉬를 쓰고 있다. 유로화를 받다 걸리면 벌금을 문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멀지 않은 곳의 소금광산, 석탄이 나는 광산은 들어 봤어도 소금이 나는 광산이라…… 폴란드의 비엘리츠키가 바로 그곳. 약 10세기에 소금 제조장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고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던 곳이 퇴적되면서 암염이 되어 광산이 되었다.



상들리에와 다양한 석화들이 조각되어 있는 성당

이 광장에서는 결혼식도 하며 또 다른 곳의 소금호수에서는 쇼팽의 음악이 들려오고 소금으로 만들어진 상들리에와 다양한 석화들이 조각되어 있는 성당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지하 100m에 성당과 카페가 마련되어 성스러우면서도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헝가리

헝가리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도 전에 동구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시장을 개방했으며 동구권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다. 부다페스트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 235m의 바위산, 바로 겔레르트 언덕(Gellert-hegy)이다. 겔레르트 언덕에서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살펴보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왕궁이 있는 부다 지역과 헝가리 의회가 있는 페스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회의 위치가 과거 서민들이 살던 지역으로 왕궁을 마주하고 서서 마치 일반 국민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그 모습은 성을 연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려하다. 부다 지역에는 역대 헝가리 왕들의 대관식으로 유명한 마차시 성당과 어부의 요새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헝가리 의회 건물은 의회라기보다 왕궁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38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좌직원은 800여 명, 우리와 달리 의원들은 다른 곳에서 사무를 보며 회의 때만 모여 회의를 하고 의회건물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원석의 앞자리가 속기사 자리라는 것이었고 의회 건물을 시찰하는 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사람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궁금했던 것을 묻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다음으로 유럽의 동양이라고 불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데 그 명성만큼이나 아름답고 마음껏 낭만을 즐길 수 있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충분했다. 과연 이곳이 공산국가였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위의 풍경과 사람들의 여유로움, 강 양편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우리나라 한강과 비교하면 너무 부러웠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한강을 어떻게 바꾸어야 그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 보았다.



의회 건물은 의회라기보다 왕궁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의회는 상·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이 실질적 권한 보유하고 하원은 183석(인구비례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 상원은 62석이다. 의장은 제1의장(다수당), 제2의장(제2당), 제3의장으로 나뉘며 임기는 5년이다.



왈츠의 도시 비엔나

왈츠의 도시 비엔나 -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등 세계적 거장을 낳은 도시.

백학기 공사님 덕택으로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와인에 다른 여행객들보다는 한층 좋은 점심을 먹으면서 오스트리아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보성 녹차가 수출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650년에 걸친 영광의 도읍지답게 화려한 역사를 보여 주는 웅장한 건물들, 아름다운 샘이란 의미의 화려한 쉐부른 궁전, 1619년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 도중 아름다운 샘을 발견한 데서 유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유럽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오스트리아. 웬지 몇 년 동안 그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도시. 아침에 노인들이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풍경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본 그런 풍경이었고 노랫말에 나오는 '저 푸른 초원'이라는 단어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 끝없는 유채꽃과 밀밭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사진에서나

보던 장면들이었다. 유채꽃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유채꽃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케른트너 거리는 비엔나 관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이고 비엔나의 중심지라고 한다. 일단 시내로 차가 진입할 수 없고 걸어서 다녀야 했는데 여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까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공사를 하는데도 옛것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로 통하는 우리의 생활과는 달리 지금 출근시간이 맞나 하는 정도로 느긋한 아침의 풍경,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여 시내 한복판에 전차와 전기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 바닥도 옛것 그대로인 모습과 하루가 다르게 옛것은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우리 서울과 비교하면 너무 느리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런 느긋함을 배우고 그야말로 우리만의 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옥을 보존해서 우리의 관광 명소로 삼고 우리의 전통놀이의 재연, 전통 결혼식 등 우리의 전통적인 아이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어쩌다 인사동에 가면 우리 것보다는 ‘made in china’가 난무하는 거리를 보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리에서 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은 적고 저런 것을 진열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인들의 그런 상술에 화가 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서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다.



알츠의 도시 비엔나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슈테판 성당 옆의 화려한 거리. 노천카페에 앉아 맥주 한 잔을 놓고 몇 시간이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아주 많았고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고 그야말로 노년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한기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노천카페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다가 어디에선가 들은 DID 정신(들이대 정신)을 발휘해서 두려움 반 자신감 반으로 비엔나 거리를 혼자 배회하면서 상점에 들어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그 노인들의 여유 있는 삶을 들여다보고 카페의 낭만을 부러움으로 바라보았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행을 하면서 나는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고 나의 가족, 선배, 가까운 후배 등 나의 소중한 인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어느 강사님께서 4쇠(자물쇠—입, 열쇠—마음, 마당쇠—행동, 돌쇠—의리)가 되어야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한 말이라도 상대가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결코 선의가 아니듯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인간적으로 친해져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인가를 깊이 되새기며 무엇이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나는 문제 없어

김나미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수기 제의를 받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려는 지금,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지칠 때마다 흥얼거리며 힘을 얻곤 했던 노래의 제목으로 하기로 했다.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힘을 내곤 했던 지난 시간들이 하나하나 스쳐간다.

처음 속기에 입문한 것은 나의 ‘팔랑귀’ 때문이었다. 중어중문과를 다니고 있던 나에게 3학년 올라가는 시기는 전공을 살려 중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든지 취업을 목표로 공부에 전진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시기였다. 또 취업 공부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창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문득 동네 아주머니가 놀러 오셔서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 사위가 법원에 다니는데 속기사 자격증 있으면 취업이 잘된다고 하기에 막내딸한테 빨리 따라라고 했어.”

나는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귀가 팔랑팔랑해졌고 관심이 가서 다음날 학원을 알아보았다. 내가 살던 전라북도 지역에는 학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학교와 가까운 전주에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속기를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처음에는 속기 3급이 워드 3급처럼 손쉽게 금방 딸 수 있는 자격증인 줄로 알았다. 6개월 만에 1급 만 사람도 있다는 학원 원장님의 말씀에 마치 내가 6개월 만에 1급을 딸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생각했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웬걸! 속기라는 것은 노력과 끈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다. 기호를 머리로 익히고 또 그제 손에 붙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다.

3급 자격증 취득 후 운 좋게 내가 살던 김제시에서 속기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다. 학교를 다니면서 1·2급 자격증 준비와 의회 입사를 위한 필기 공부를 해야 했기에 시간적으로 버거웠지만 욕심을 냈다. 그리고 운 좋게 합격을 했고 김제시의회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김제시의회의 속기사는 나를 포함해서 두 명이었다. 회의는 본회의, 3개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등이 있었다.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두 명이 교대로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보통 동시에 열렸기에 한번 들어가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전담을 해야 했다.

의회에서는 회의에 들어가서 속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의록이 책자로 인쇄되고 인터



넷에 등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최종 회의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의회에서 일을 하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속기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였다. 속기사가 나를 포함해서 두 명이었고 내가 입사할 당시 처음 속기사를 뽑았던 것이기에 직속 선배 속기사도 없었다. 좀 더 많은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일을 하고 싶었던 찰나, 우연히 한 국회 속기사 분의 합격 수기를 읽게 되었다.

“사람에게 길들여질 필요 없이 나 혼자 일만 하면 되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함께 작업하고 함께 해결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 수기를 읽고 국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속기사가 가장 많은 국회는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되었다.

국회속기사라는 목표가 생긴 후 국회에서 공고가 났고 응시를 해 보았다.

첫 시험은 준비 없이 봤기에 당연히 낙방이었다. 경험 삼아 본다는 생각으로 응시했던 것이라 떨어졌을 때 별 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은 달랐다. 꼭 붙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퇴근 후에 동영상 강의도 듣고 직장에서는 틈틈이 실기연습을 하는 등 시험 준비를 했었고 야심차게 시험에 응시했는데 역시 낙방이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는데 떨어지니 많이 속상했고, 그다음 시험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할 생각을 하니 딱딱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



힘에 올인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던 시기였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용기도 나지 않았다. 결국 조금씩 마음먹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또 그렇게 다음 시험까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국회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기회가 시작되었다. 입사 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는 한마디로 '정신 없음'이었다. 일을 익히는 건 고사하고 주무님이 없이는 회의장 위치도 잘 못 찾고 버벅대는 어리바리 상태로 정기회를 마쳤다.

이제 국회에 입사한 지 8개월여가 지났다. 8개월여간 일을 하며 느낀 좋은 점은 선배님과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선배님 없이 내가 전담을 해야 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틀린 곳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즉각즉각 물어볼 수 있어서 내가 점점 나아지는 속기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문장을 문장부호 몇 개로 이해가 되게 만들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잡아내는 선배님들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언젠간 나도 그런 내공이 쌓인 속기사가 되리라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건다.



옹크리고 있던 날개를 펴다

김밀알



신임실무자교육 중
일본 하코네 공원에서
(가운데가 필자)

누구나 그렇지만 어릴 때는 자신이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나이 23살, 혹독한 회사생활을 겪으며 그건 철모를 적 파라다이스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뷰티디자인과’라는 특이한 과를 졸업하여 원하는 화장품 회사의 강사로 어렵게 들어갔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사하고 말았다. 들어가기 전에는 팀장, 이사 등등 커리어우먼을 꿈꾸던 젊은이다운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은 온데간데 없었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드센 여자들이 많은 화장품 업계, 때론 영업까지 요구받으며 쌓여 가는 압박은 자연스럽게 다른 탈출구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다 보니 그 길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서 웹서핑을 하며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색 직업 사이트에서



국회속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2차 실기시험 때문에 커트라인도 살짝 낮고 근무지도 결코 범상치 않은 ‘국회’ 라는 불순한 동기로 부모님을 설득시켜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일사천리, 처음에는 속기자격증을 워드보다 조금 어려운 자격증으로 생각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속기를 배우면서 결코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로부터 국회속기사 시험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나는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국회속기사 응시자격이 된다는 사실에 다짐했다, 필기시험 바로 한 달 전에 있는 속기 국가자격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남들보다 2·3배 연습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중 최대한의 시간을 속기에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남들보다 많이 틀리는 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속기 시작 9개월째 있던 국가자격시험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때 ‘나의 길은 이 길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한 달쯤 후에 있는 국회 필기시험은 진도의 삼분의 일도 못 나간 상태, ‘공부는 거짓 말을 하지 않는다’ 했던가? 나는 시험에서 보기 좋게 미끄러졌고 필기점수만 여유롭게 만들어 놓자 다짐했다.

그러던 중 학원 원장 선생님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한 달간의 군포시의회 속기보조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채 한 달도 못 했지만 처음 접하는 회의 실무가 나에게서는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11~12월에 걸친 정례회였다. 20분에 한 번씩 교대하는 일,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처음 듣는 지명과 재계



발 용어들은 그 당시의 나에게겐 그야말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회 말고 다른 직장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았던 때다. 다른 이유도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의회 속 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 행정직 분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몇 달 후 2008년도 속기직 공채 공고가 났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1년은 일을 하지 않은 덕에 평소 풀어 보면 평균점수가 여유롭게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 시간이 조금 모자랐고 긴장한 탓에 실수한 건지 밀려 쓴 건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영어점수가 나왔다.

두 번째 낙방,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한 탓일까 정말로 충격이 컸던 것 같다. 두 번째 실패로 뭘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점수가 평소 점수의 거의 반 토막 점수가 나왔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다. 허탈감에 꽤 오랜 기간 놀기만 했던 이 시기가 아마도 최대의 슬럼프가 아니었나 싶다.

부모님도 이대로 국회만 바라보다 실업자로 놀면 어떡하나 슬슬 걱정하시기 시작했고 경력도 쌓을 겸 무리하는 곳 아니면 어디든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취업공고가 떴다. 다름 아닌 '중앙일보 속기사 채용' 이었다. 급여는 별로 많지 않지만 우선 근무지는 국회의사당, 6시 정시퇴근에 잔업도 없고 일이 없을 때는 공부할 시간도 꽤 있다는 설명을 보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면접 때 국회에서 일한 경력이 웬지 모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했고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면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이해도 빠를 것 같았다.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내 의지만 있다면 지금 상황에 이보다 일석이조인 직장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좋아! 이곳을 발판 삼아 1년 후엔 반드시 꿈을 이루는 거다, 김밀알!’ 이렇게 중앙일보에서의 생활은 시작됐고 여기 생활은 국회의 1년 패턴과 비슷했다. 회기 중이나 이슈가 터지면 바쁘고 비회기 때는 정말로 한가해서 한 달 일한 급여를 받기조차 민망할 때도 있었다.

비회기 때는 틈날 때마다 노트북 옆에 책을 펴 놓았고 영어단어는 여의도와 인천을 왔다갔다하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그날 정한 양의 단어를 외웠다. 어떤 벤처기업 사장은 이 지하철 시간을 이용해 자격증을 수십 개 땀다고 했던가? 정말 이 시간은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중앙일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면 속기사는 나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내용을 하나 맡아 기록하기 시작하면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 몇 시간을 연달아 쳐야 했던 점, 기자들이 워낙 바빠 홀로 점심 먹는 일이 비밀비재했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칼퇴근이라지만 인천까지 왔다 갔다하면서 쌓인 피로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기가 일수이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래도 공부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모두들 잘해 주시기는 했지만 계약직에 혼자만 속기사라는 점 등 소속감에서 밀려오는 외



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국회 속기사가 돼 있는 내 모습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기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아침마다 출근하여 메인 신문 몇 개의 기사를 비교해 가며 읽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기자들과 정치에 관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어느덧 기자실 생활에 몸도 마음도 편해져 갔다.

그러기를 1년 조금 못 되어 손꼽아 기다리던 국회 채용 공고가 났다. 시험 한 달 전 주저 없이 차장님께 시험 준비를 위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열심히 해서 꼭 국회에서 보자는 중앙일보 식구들의 응원을 뒤로한 채 책을 싸들고 집으로 왔다.

공부하겠다고 한 달 정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나는 삼수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철호 원장선생님의 도움 아래 실기, 면접까지 통과하여 지금은 이렇게 2009년도 합격자 수기에 글을 남기고 있다.

합격하고 나니 한 가지 창피한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해마다 그렇듯 2009년도에도 채용이 있다 없다 말이 많았고 공고가 꽤 늦게 났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나는 과거에 한 번쯤 꿈꿨던 다른 직업들 사이에서 잠깐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다. 불안한 사람들의 극단적 심리의 끝은 이런 것일까, 천주교인인 나는 고민 끝에 유명한 강북의 한 점집을 찾아갔다. 미래에 대해 물었더니 뜬금없이 유학을 가란다. 그리고는 정 공무원을 하려면 아직 기가 막혀 있으니 나를 둘러싼 그 기를 뚫어 주기 위해 부적을 하나 하자고 했다. 가격은 내 월급의 거의



절반. 고액의 비용과 석연치 않은 풀이에 복비만 내고 나왔다. 그런데 난 합격을 하지 않았는가. 혹 부적을 썼다면 난 지금쯤 그 똥똥이 도사님을 맹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 '똥' 하고 실소가 나온다.

수많은 에피소드를 뒤로 하고 내가 핑크빛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바로 5주간의 연수이다.

연수기간 동안 속기·경위·행정직 동기들과 마치 대학생처럼 웃고 떠들며 연수원에서 함께 수업받고 산업시찰, 일본연수 등을 하며 친해졌던 일들이다. 어떤 강사 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니 마음껏 즐겨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벌써 아련한 추억이 된 것만 같다.

연수를 마치고 9월 1일, 의정기록 1과에 처음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국정감사,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보내고 시보도 펴 기념으로 방에 한턱도 냈다.

그런데 그런 기간에 비해 나는 아직 배울 것 천지에 신입 티를 덜 벗은 새내기 학생인 것 같다. 속기사가 그냥 듣고 받아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속기사가 갖춰야 할 자질, 배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직업인지 아마 모를 것이다.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쏟아지던 위원회, 하루에 대여섯 번 회의장을 들락날락,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회의 스케줄에, 챙길 것 투성이인 회의 준비에, 가끔 덜렁대다 혼도 나고 신입이라 빨리 할 능력은 안 되고 원고는 쌓여만 가고…… 가끔은 울고 싶기도 했다. 가장 힘들다는 소위에서는 안경에 벡타이, 하나같이 비슷한 얼굴들과 복화술을 하는 듯한 의원들은 무던히도



애를 먹이곤 한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어려운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한 개 한 개 완성해 가며 들던 성취감, 또 늘 화두가 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회의록을 내가 만든다 생각하면 사명감과 긍지가 마구마구 샘솟기도 한다.

요즘 예전에 잠시 찢어 봤던 항공사 취업학원에서 학원 가입 권유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저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라고 당당히 말하며 수화기 건너편의 축하한다는 답변까지 듣고 끊곤 한다.

봄이 시작되는 4월,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다울 윤중로와 이곳 국회 의원동산에는 눈처럼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속기사가 꿈이었던 27살 한 처자(?)의 꿈도 대한민국의 심장부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의 한 중심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이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이성만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세 번째 시험에 도전해 국회에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국회에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 모두 열심히 공부하셨고 들어와서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세 번째 시험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이 글을 쓰는 지금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속기와의 만남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대기 중이었을 때 한 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튼튼해 보이는구먼. 따라와!' 줄줄 따라다니며 도착한 곳은 어느 행정반이었다. 그곳에서 다짜고짜 컴퓨터에 앉으라고 하더니 타자연습 게임을 쳐시키고는 쳐 보라고 했다. 중학교 때부터 취미로 하던 2벌식 타자연습이 빛을 보던 때였다. 엄청난 속도로 2벌식을 타이핑하



는 모습을 보더니 ‘너 여기서 근무해라’ 라고 하셨다. 속기와 2벌식은 다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속기사가 될 가능성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기 며칠 전, 대학에 복학해서 졸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될지 고민하다 속기사에 대해 알게 됐다. 솔직히 말하면 프리랜서 속기사의 경우 1시간에 20~30만 원을 번다고 적혀 있던 인터넷 광고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1~2시간 속기를 하면 서너 배에 달하는 번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리 없지 않은가. 역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휴가를 나와 군대 가기 직전에 2~3개월 근무했던 곳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속기를 배우기 위한 돈벌이에 전념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일을 했고 끝나고 나서는 속기학원에 가는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속도가 올라가는 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학원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습을 했다. 일할 때보다 연습 시간은 충분했고 그해에 3급 자격증을 땀다.

목표에 다가가는 한걸음

3급 자격증을 딴 후 자막방송, 속기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속기사로서 경험을 쌓았지만 모두 다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 후 국회속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끈질긴 도전이 시작됐



다. 속기를 배운 지 2년 만인 2007년도에 첫 국회 시험을 보았다. 처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너무 재미있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부모님께서서는 첫 술에 배부르랴, 처음이니까 시험 삼아 쳤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공부해 보라고 하셨지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실망도 컸다.

꿈을 위한 도전 그리고 성취

2008년도에 두 번째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오히려 첫 번째처럼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지 한 번 공부했던 책을 또 보고 또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지겨웠다. 그래도 곳곳이 이론 준비를 하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다. 다행히도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필기시험 합격에 대한 기쁨도 잠시, 2007년도 시험 이후 속기 연습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짧은 연습 기간이 지나고 시간은 흘러 실기시험을 보는 날이 왔다. 교회 때문에 자주 국회 앞을 지나다녀서 시험 보러 갈 때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평소 교회를 가려고 국회 앞을 지나가던 마음과는 사뭇 다른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왔다.

시험이 시작되고 논설체를 처음 보았다. 1분 정도 흘렀을까, 평소에 긴장을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떨다니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손이 조금씩 굳어 가고 나중에는 아예 손이 멈춰 버렸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3초 정도는 손이 멈춘 것 같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포기해 버릴까?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결국 3초 후에 다시 손을 움직여 논설체를 마무리하고 연설체는 논설체보다는 편하게 잘 썼다. 하지만 논설체를 아주 못 봤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가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2차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없었다. 중요한 2차 시험에서 제대로 된 실력도 보이지 못하고 떨어서 어디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면접을 준비했다.

합격에 대한 기대와 마지막 관문이라는 의욕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지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까,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3차 면접 결과는 낙방이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하면서 결국 마지막 2009년 시험까지 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2008년도 시험 경험이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다. 2009년 마지막 시험은 필기·실기를 거쳐 면접까지, 어느 해보다도 순조롭게 넘어갔고 드디어 나는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다.

다시 시작된 도전

첫 출근을 하며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며 느꼈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국회에 들어오다니 내 자신이 너무 대견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온 후는? 나에게서는 ‘그 후’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한



자, 띄어쓰기, 맞춤법, 전문용어 등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내가 여러 번을 다시 들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 또는 문장을 주무님은 단 한 번에 듣고 써 주신다. 그때마다 '그 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에게 둘러싸여 한가운데서 속기하는 것은 여간 떨리는 일이 아니었다. 마침 내가 입사했을 때는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인 정기국회였기 때문에 일도 배워야 했고 속기를 하는 현장 분위기에도 적응해야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다.

국회에서의 회의에 하루하루 조금씩 적응하던 중 국정감사를 가게 되면서 국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장을 나가 속기하는 일도 경험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속기는 국회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한글파일 관리라든지 음성파일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당황하게 된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가장 중요한 12월은 아주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간다. 2010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2010년 새해를 맞이했을 정도다.

이제 막 속기서기보 시보를 뎀, 겨우 6개월 남짓한 국회 의정기록과에서의 시간을 보낸 지금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새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국회속기기사로서 노력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 속기사니까!



알 흠 다운 두 가슴의 바운스
"Tango"

제신지

Tango "만지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원인 'Tangere'에서 기원



Tango



#1 Tango

심호흡을 한다.

손끝이 창백해져 온다.

눈은 쉬임 없이 바닥에 그어지는 선을 쫓는다.

아까부터 잠깐씩 눈이 맞추어진 한 남자가 옷매무새를 고치더니 내게로 걸어온다.

열은 금발의 머리를 하고 눈은 살짝 갈색이다. 짧은 순간에 나는 그의 얼굴을 살살이 훑어낸다.

남자는 얇은 입꼬리를 올리며 생긋 미소 지으며 내게 말한다.

Vous voulez danser avec moi?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입이 바짝 마르는 긴장된 순간이다.

조심스럽게 그의 왼손에 나의 오른손을 올리고 그가 내 등을 오른손으로 감싸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왼손을 올린다.

그의 손바닥 절반을 약간 넘어선 정도를 차지한 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가볍게 떨린다.

항상 그렇다. 나는 어느 누구를 만나 땅고를 추든 첫 곡은 그렇게 새끼손가락이 떨린다. 어찌 아니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난 사이예요, 나는 수줍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 대신 눈빛 대신 내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내 등을 가볍게 감싸 안은 그의 손에서의 미세한 떨림이 등줄기를 통해 전해져 온다.

그의 가슴과 나의 가슴 사이의 공기가 타이트하게 긴장된다.



음악이 시작되고 두 번 정도의 박자를 놓친 뒤 그가 가슴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밀며 왼발 첫 스텝을 밟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둘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오른발을 뒤로 내디뎠다. 조심조심 살짝살짝 우리는 눈길을 피하며 약간 내리깔은 채 서로의 가슴 속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마룻바닥을 스스스스 소리내며 걷는다. 곳곳이 세운 가슴은 첫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쉬이 긴장이 풀리지 않고 바닥같이 딱딱하다.

첫 곡이 끝나자 미세하게 전달돼 오던 그의 손 떨림도 그의 손에 얹어져 있던 내 손의 떨림도 긴장이 풀어져 멈춘다.

음악이 이어질수록 남자와 내 가슴의 간격이 서서히 좁혀진다.

세 번째 곡이 흘러나올 즈음 그의 가슴과 내 가슴이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한없이 부드럽게 나의 등 전체를 그가 팔과 손으로 감싸고 — 마치 그는 나의 연인이 된 듯하다 — 나도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감싼다. 이제 우리는 경계를 완전히 풀고 플로어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볍게.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럽힌다.

싫지 않은, 아니 오히려 반갑다고 느껴지는 타인의 숨결이다.

반도네온의 음색이 질어지면서 우리의 다리도 점점 바빠지기 시작한다.

주옥 슬로우 스텝을 고집하는 듯했던 그가 내 다리 사이의 공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나도 뒤질세라 그의 공간을 깨고 나온다. 간초, 간초, 간초.*



“공간의 침범”

세 곡의 탐색전이 끝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땅고를 탐닉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하면서도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킨다. 그가 다가오려 할 때 살짝 공간을 비틀어주며 흘러나오는 음악에 그의 리드를 따라가는 것과 동시에 나의 춤을 그에게 어필하기 시작한다. 그가 살짝 물러날 때 또 과감하게 다가가 발짓과 눈짓으로 다가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마치 연애를 하듯이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그 순간을 즐기려고 애쓴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음악이 멈추지 않기를 ……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파르르 떨리는 건 그의 속눈썹.

그 떨림에 그제서야 미소를 머금는 나의 아랫입술.

내 유혹을 뿌리치지 마오.

당신과 나의 손 마디 사이사이가 애달파라.

가슴에. 붉은 꽃. 송이송이 피었다.

어제보다 더.”

2008. 05. in Paris. “La Catedral del Tango” 밀롱가.



#2. 시작.

열여섯 살 때 학교 앞 레코드 가게에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을 듣고 나는 정말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었다. 아마도 그때가 처절한 사춘기가 아니었나 싶다.

탱고 음악에서의 선율이 클라이막스로 갈 때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무작정 그때부터 탱고 공연을 보러 나는 꼭 아르헨티나에 가겠다고 결심했다. 음악에 대한 동경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었고 프리다 칼로를 사랑하게 되고 탱고 춤에 대한 열정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춤은 추지 않고 종종 음악만 들으러 탱고바에 자주 가는 편이다. 북카페처럼 바뀐 환경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계속 탱고 음악만 듣고 있으면 난폭하게 안에서 날뛰던 내가 온전해지는 걸 느낀다.

#3. 갈등

어느 뉘들은 그런다. 너도 꽤나 연식이 있으니 이제는 여러 유명 외국댄서들의 강습을 섭렵하고 가르쳐 보는 게 어떨겠냐고.

나도 한 때는 그런 것에 미쳤던 적이 있었다.



음악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땅고를 추던 내 모습을 어느 날 보니 나는 음악도 뒤틀린 상대와의 교감도 뒤틀린 오로지 나의 춤사위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이쁘고 멋지게 보일까라는 데에만 집중하고 누군가 칭찬 비스무리한 말을 해 주면 겸손함 없이 어깨가 으쓱거릴 때가 있었다. 어느 누구와 춤을 춰도 음악이 들리지 않았고 심심하기만 하고 힘에 부쳤다.

왜 이렇게 되었냐며 아무도 무어라 하지 않는데 혼자 부끄러워 잠깐 땅고를 떠난 적이 있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땅고를 추지 않고 지내다가 재작년 5월에 파리를 갔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땅고”라는 영화도 있듯이 파리는 땅고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다. 그곳에서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라 나를 즐기기 위한 춤의 느낌을 되찾아 가지고 왔다.

조그만 동양 여자애는 나 혼자였던지라 바에 앉아 있던 내내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그때 다가와 기꺼이 춤을 신청하고 1시간 동안 내내 나와 호흡했던 그 금발머리 남자가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다.

그곳에 이방인으로 벽의 꽃처럼 앉아 있던 나는 그와 볼을 맞대고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땅고 안에서 그가 내 연인인 양 플로어를 누비고 다녔다.

아마 앞으로도 몇 번이나 어떤 고비를 가지겠지만 또 나는 잃지 않기 위해 돌아갈 것 같다.

#4. 나는 화가.

“내 발끝은 붓이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고를 찾다. 처음부터, 땅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내 발끝에 온 에너지를 집중시켜 바닥을 긁는다. 바닥에 그려진 것은 때로는 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에서 흩뿌려지기도 한다.

가끔은 그런 때가 있다. 몸의 체력도 마음의 체력도 다 바닥이 나서 지쳐서 그저 주저앉고만 싶을 때, 나는 그럴 때마다 땅고를 찾는다. 땅고 안에서 나는 항상 그 지친 마음을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오롯이 나와 만날 수 있으며 오롯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격리됨을 그렇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화가.다.

#5. 로망

언제가 되면 나는
해질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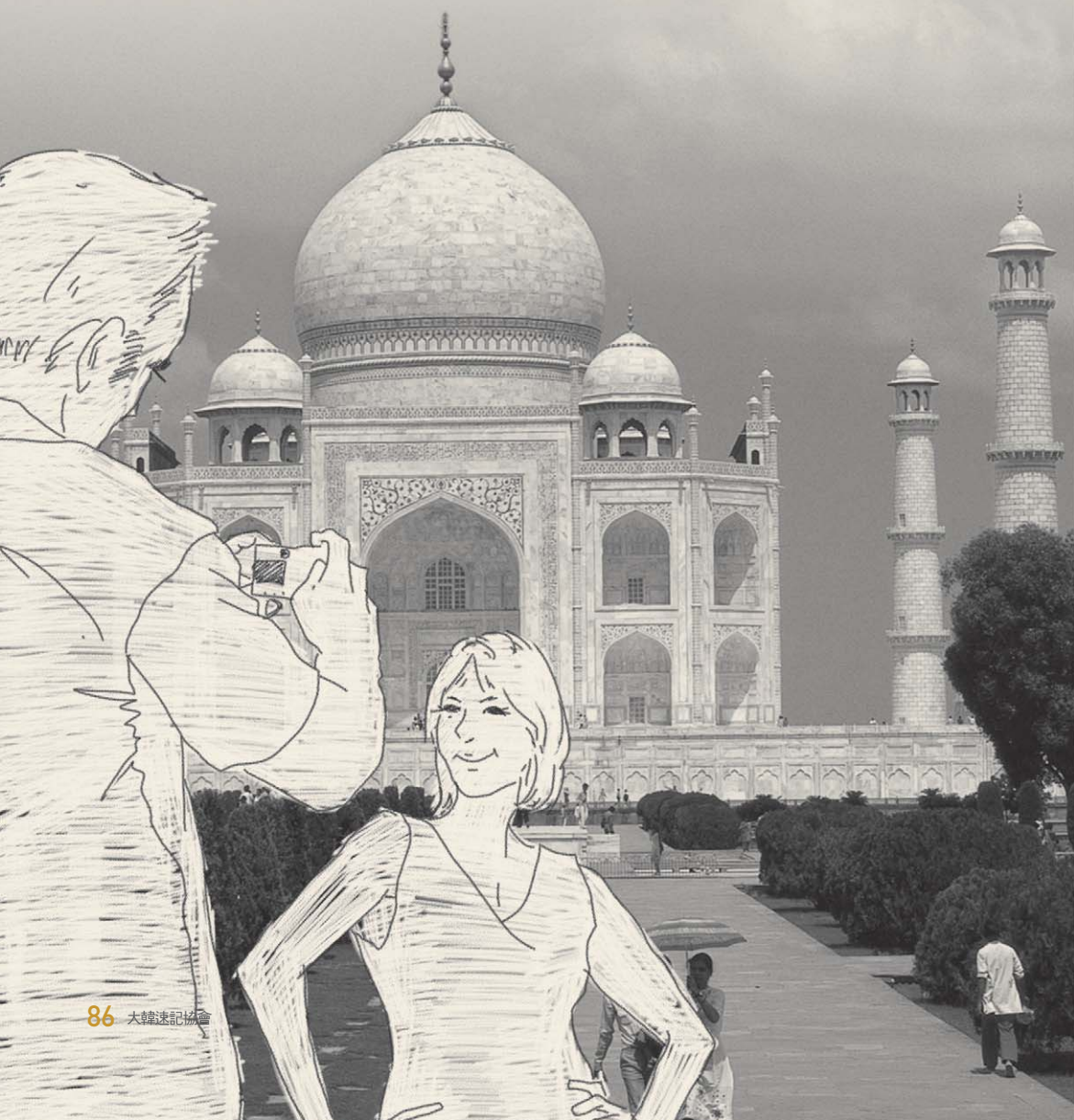
사랑하는 너를
품에 끌어안고
너의 눈에 나를 담아
우리가 꿈꾸는 노래를
들으며 땅고를
출수 있을까.

“아무리 아무리 추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공허함을 가득 안은 채, 순간에 바치고 싶은 열정. 당신 눈가에 흐르는 찰나의 애정으로 돌아가는 길, 허파 속 허한 바람에 휘청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

알흠다운 두 가슴의 바운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Tango다.

인도 여행기

지성숙



여행!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이 나라만
큰 언젠가 꼭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있을 겁
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또 뭘 핑곤킨
리가 그리 많은지 자꾸 미루게 되지요, 이때는
무조건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뒤도 안 돌
아보고 떠날 수 있거든요.



시작

돈도 없고 함께 보낼 사람도 없던 여름휴가가 다가오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골
집에나 가서 고추나 딸까? 날 불러 주는 이 하나 없구나’ 신세한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나와 처지가 비슷한 한 처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나와 작년 여름휴가를 같이 보낸 친구?
우린 역시 친구야! 서로를 위로하며 토닥토닥, 그녀가 한마디를 외칩니다. “우리 인도 갈래?” 평
소 티벳 인권과 관련된 모임을 하고 있는 그녀가 인도를 가잡니다. 저는 쾌재를 부르며 외칩니
다. “좋아!” 무엇보다 인도는 언젠가 꼭 한번 가 보고 싶은 동경의 나라였으며 또한 여행 금액도
적게 든다는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실제로 8일 정도 여행하면서 항공비 포함 100
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루트를 짜는데 일정은 짧고…… 그 친구는 북쪽으로 가잡니다. 8월이면 인도의 날씨는 정말
덥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야, 인도 하면 타지마할은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갠지스
강도 봐야지.” 무조건 우기고 봅니다. 인도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사실 그 친구는 모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거죠. “지금 델리 가면 죽음이다. 그 더위를
어떻게 참으려고 그러냐?” 친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제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난 무조건 타지마
할과 갠지스강은 봐야겠어. 뭔가 깨달음을 얻고 올 거야!” 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그렇게 제가 뻑뻑 우기는 바람에 루트를 뉴델리—아그라(타지마할)—바라나시(갠
지스강) 그렇게 잡고 들뜬 마음으로 인도로 떠났습니다. 50ℓ 되는 배낭을 빌려 침낭까지 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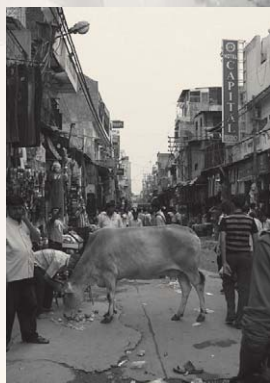
India

제 몸만한 배낭을 메고 공항으로 갑니다. 미처 인도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프린트를 해 가서 비행기 안에서 밑줄을 그으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날아갑니다.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 밀려오는 습함과 더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날씨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배낭을 메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도대체 버스 타는 곳이 어딘지, 물어 물어 버스를 타고 뉴델리역 근처에 숙소를 잡을 생각을 하며 가는데 전 벌써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이미 지쳐 있었던 거죠. 동양 사람 하나 없는 버스에서 사람들은 우릴 쳐다봅니다. 전 정말 말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와 정말 숨이 탁탁 막힙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참 걱정되는 순간이었죠.

삐끼들을 조심하라

가기 전 미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삐끼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행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리샤를 타면 엉뚱한 곳에 내려 주며 돈을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아봤자 내 몸 하나 힘들면 아무 소용없더군요. 버스에 내려서 친구가 걸어가지는 말에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도무지 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샤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나나 다를까 저희는 삐끼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저흰 아직 순수한 건가요, 멍청한 건가요? 영어라면 귀를 달아 버리는 저와 달리 제 친구는 실 틈 없이 쓰아댁니다. 겁에 질린 제 친구와 달리 전 옆에서 참 순진한 얼굴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응? 응?” 휴~ 영어공부 해야겠구나……



빠하르간즈

뉴델리

뉴델리역 앞 빠하르간즈라는 곳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숙박을 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나름 메인 거리인데 비포장도로에 소, 사람, 개, 리샤, 먼지 폴폴…… 정말 어지러운 곳이지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에 에어컨 없는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정말 들어선 순간 깽~ 천장에 팬 하나 돌아가는 방, 나란히 누워 있는 그러나 정말 침낭 없이는 못 잘 침대, 바퀴벌레 나오는 욕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물까지?

그래도 그곳에서 3일을 버텼습니다. 전 밤이면 기절을 했고, 친구는 기절하다 일어나 물을 끼얹곤 했었죠. 밥을 먹으러 갔더니 친절하게 식탁을 닦아 줍니다, 바닥 닦던 걸레로 참 밥맛이 좋겠죠? 도통 적응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찌나 하나같이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리샤를 타기 전엔 꼭 흥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배는 높게 금액을 부르더군요. 영어는 못 해도 흥정은 저의 몫.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다시 붙잡기 마련이죠.

티벳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인도 속의 작은 티벳, 티벳탄폴로니라는 곳을 갔습니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들을 걸으며 신기한 액세서리와 소품들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소문난 맛집에 가서 모처럼 배불리 밥도 먹고, 인도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곳이에요.

IT 강국, 델리대학도 한번 거닐어 봅니다. 인도의 대학생들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멋진 대학생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지만 대학교는 웅합니다. 마침 터벅터벅 더위에 지쳐 홀로 걷



간디박물관

고 있는 개와 셋이 교내를 둘러봅니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사귄 친구라고나 할까요.

붉은 성이라는 곳도 가 봅니다. 이곳은 1638년에 시작하여 1648년에 완공한 왕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성채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붉은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 공사 중이라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공사 날 짜가 저희가 떠나는 날과 어찌나 딱 맞아떨어지는지 …… 아쉽더군요.

날씨가 너무 더워 밖으로 돌아다니기에 너무 지쳐 간디박물관으로 피신 왔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 사실 거창히 포장해서 말해도 되지만 솔직히 그냥 더워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날씨가 더우니 정말 무기력해지더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여행에 있어서 날씨는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여행을 하면서 동물원을 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으로 동물원을 가 봤습니다. 물론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이 있는 곳을 원했던 거죠. 인도까지 와서 동물원이라, 좀 웃기긴 하지만 저희에게 정말 좋은 휴식처였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느라 정신 없는 관광객지와는 달리 쉬엄쉬엄 느린 걸음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빠하르간즈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코넛플레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시내 변화가 중심상가라고나 할까요? 방사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음식점, 유명브랜드, 은행, 공원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격도 만만치 않으며 맥도널드가 있는데 이곳 출입문에는 경찰들이 서 있어서 가방을 검사하곤 하죠.



자마 마스지드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있으면 된장녀라고 하죠. 저흰 인도에서 맥도날드 콜라를 들고 있는 된장녀라고나 할까요? 콜라 한 잔에 뭔가 으쓱합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오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옆 테이블의 인도 사람들이 요리에 맥주에 딱 보기에든 가격에 꽤 나가겠는데 상관 않고 먹더군요. 갑자기 하루 벌어 간간이 생활을 이어가는 리스꾼들과 집이 없어 델리역에 아무렇게나 누워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뭔가 씩씩하네요. 이곳 상점들은 에어컨도 나오고 좋습니다. 처음 델리를 여행할 때 아무리 더워도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거든요.

공원에 잠시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갖습니다. 희한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있어서 그들 눈에 익숙할 만도 한데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사진기를 꺼내면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바라봅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받지도 못할 사진을 왜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는지, 그래도 인심 한번 쓰자 싶어 마구마구 찍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참 순진하죠. 전 찍사, 제 친구는 모델, 전 여기서도 인기가 없는 건가요? 유난히 흰 피부를 가진 제 친구를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타지마할

뉴델리역에 기차를 예약하러 갑니다. 역에 들어선 순간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



타지마할

이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꼼짝 않는 사람도 있어서 전 어떻게 된 줄 알아 겁을 먹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분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여기도 한창 성수기인지 한국에서 기차를 예약하려고 해도 도저히 자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나와 기차를 기다리는데 이런, 1시간 아무 말도 없이 연착이네요. 새벽부터 일어난 게 뭔가 억울합니다.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묻는다면 기차를 타는 시간입니다. 기차는 정말 에어컨이 뽕뽕하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뽕뽕하다 못해 추워서 덜덜덜……

아그라는 그다지 멀지 않아서 점심 즈음 도착했네요.

왜 제 눈으로 직접 타지마할을 보는 순간입니다!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꿈쩍이 사랑했던 왕비 몸타즈마할을 추모하여 만든 것으로 22년간 지었다고 하네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한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하얀 건물,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건물까지 300m나 되는 수로를 단숨에 더위도 잊은 채 걸어갑니다.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들어간 곳은 정말 무늬 하나하나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며 단숨에 돌아봅니다. 궁전 내외부의 장식 보석들은 세계 각지에서 조달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흥린 듯 타지마할을 보고 나오는데 정말 단숨에 달려왔던 그곳을 더위에 지쳐 가다 쉬고를 세 번 반복한 끝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나오게 되었네요. 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바라나시 골목길



바라나시

갠지스강

정말 꼭 한번 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라나시, 화장터가 있는 갠지스강을요. 그곳은 가장 인드다운 곳일 것 같았거든요. 잔뜩 기대를 하며 12시간에 걸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역시 기차를 타는 건 즐겁습니다. 시원하니까요. 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숙소를 찾아 헤맵니다. 리샤를 타고 큰길까지는 갈 수 있지만 바라나시 골목은 정말 좁아서 더 이상 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좁은 골목엔 소가 누워 있어 옆으로 살금살금 걸어야 했고 염소들마저 좁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골목입니다. 길을 헤맬까 좀 겁이 나면서 배낭을 메고 혁혁대며 땀만 보고 견습니다.

바라나시는 화장터가 있어서 유명한 곳이지요. 일출 시간이 될 때면 힌두교도들은 성스러운 갠지스강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목욕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그러나 그 강에는 화장재, 소,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바라나시를 걷다 보면 시신을 천에 감아 지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장터는 바로 갠지스강과 접해 있습니다. 화장터를 보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무척 상기되었는데 막상 장작에 묻혀 화장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떤 묘한 기분을 이끌어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바라나시는 아쉬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가장 기대했었는데 여기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던 거죠. 친구와 밤새 끄공 앓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표를 알아볼까도 생각했었으니까요. 참 아쉬웠던 여행지입니다.

인도!

인도에 대해 뭘 느꼈냐고 묻는다면 사실 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여행했기 때문에 뭘 느꼈냐는 말에 대답하기가 좀 쑥스럽다고나 할까요? 처음 도착했을 때 다른 나라와 달리 더 낮설었던,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시선, 델리역에서 잠을 해결하는 사람들, 그 앞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끊임없이 흥정하는 리사꾼들, 그리고 힘든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항상 그들의 입 속에는 빨간 피로 착각할 만한 씹는 담배를 항상 질경거리고 있습니다.

사이클릭사는 리사꾼이 힘들 것 같아서 차마 못 타면 그것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타줘야 저 사람들도 먹고 살 텐데 도저히 사이클 리사는 못 타겠더군요.

도로 위에서 묘기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는 어린아이들, 제 친구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갠지스강가를 거닐 때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무조건 팔에 그림을 그리곤 돈을 달라 합니다. 한 아이는 학교를 다닌다며 자랑을 하는데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게 하더군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힘든 삶만 얘기했지만 정신적으로 누가 더 행복하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듭니다. 단지 저들보다 내 몸이 좀 더 편하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질을 떠나서 하루하루 본인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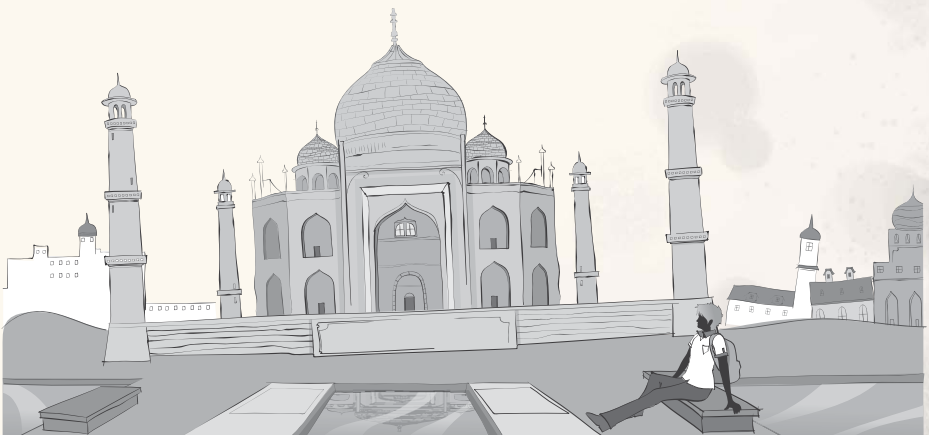
사이클릭사



오토릭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두 번 다시 못 가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쉬움이 참 많이 남은 여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인도를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두 말 않고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건강하게,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야기

박정현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았다고. 그냥 혼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다.

뭐, '못 할 것 같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내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른이 넘도록 연애행험 한 번 없이 그냥 이성과는 친구 이상의 관계는 가져 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혹평을 하

는 누군가는 내가 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연애에 외모 부분에서의 자격이라는 것은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겠다), 하여튼 좀 그랬다.

그렇다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아주 보통의 단란하고 편안한 가정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거나 하면 엄마가 굶는 바가지(?) 덕에 가끔씩 있는 다름

외에는 거의 큰소리가 나지 않았고, 뭔가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면 어린 자식들 모아 놓고 나를 가족회의도 하는 그런 보통의, 오히려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어서 나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가족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운 부모님 성향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남 탓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원인 분석도 무의미한 듯싶다.

2004년 12월 말일 날 받은 내 친구로부터의 연하장에는 '부디 나처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바라~' 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픽' 웃었다. 내가 연애는 무슨……

그리고 2005년 1월에 아무 생각 없이 선이라는 것을 보러 나갔는데, 지금의 성실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연예인 아무개를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나지만 현실에서 외모로 사람을 줄 세우 본 적도 없고,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런지 키나 외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혹자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더라도). 단지 이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그리고 정직하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업무상 출장이 걸려서 못 만날 날이 아니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난 열성 끝에 그해 8월 27일 날 결혼했다. 혹자는 나에게 늦게 난 바람이 무섭다는 둥 그리 급했냐는 둥 놀리기도 했지만 그냥 연애 과정에서 있는 줄다리기라는 건 감정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둘 다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만났고 서로를 알아간 끝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연애에 시큰둥한 척하더니 완전 호박씨였다며 주변에서 통을 놓기도 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 다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임신에 성공했고, 서준이가 태어났다.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게 참 예쁘고 귀여운 아기였다. 이것도 아마 콩깍지고 고슴도치가 제 새끼 예뻐하는 것과 다를 아니겠지, 연신 돌이서 그러면서도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처음 낳았을 때 황달기가 있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금방 좋아졌고 집에 와서도 어디 크게 아픈 적 없이 아주 무럭무럭 잘 커 주었다.

산모를 아주 많이 괴롭힌다는 밤중 수유도 비교적 일찍 끊어 준 효자 서준이 덕에 밤에 푹 잘 자고 지냈고, 출근할 무렵인 100일 정도 되었을 때는 안아야만 자던 습관도 없어지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엄마가 저녁 준비할 시간에는 유아용 의자에 앉혀 놓으면 30분 이상도 혼자 앉아서 꼬물꼬물 놀아 주어서 참 수월하고 편한 아기였다.

그 아기가 벌써 36개월이 지나 4살짜리 어린이가 되었고, 지금은 국회 어린이집에 다닐 만큼 컸다. 제법 자기 의견을 말할 줄도 알고 고집도 생겼다, 물론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애를 먹고 있지만.

친정 엄마는 이런 맛에 애들 키운다 하시지만 참 힘든 것 같고 이 짓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육아라는 게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은 것 같다. 나를 죽이고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특히나 모유수유하는 1년 동안은 그런 느낌도 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덕에 나도 조금은 어른이 된 듯한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제 6월이면 예쁜 딸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임신·출산의 과정이 다 내 뜻대로 됐

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더더군다나 아들 다음에 생긴 딸이라는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속기계에 이런 극히 개인적인 글을 쓰게 되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새삼 나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과 건강한 아이, 그리고 단란한 가정, 그 덕에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다. 내가 살아가는 데 활력소를 주는 존재들이랄까…… 물론 그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조차도 나를 키워 주는 동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건 모든 가정에 다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다. 그들이 뭔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것 말이다.

지금 부모님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전화를 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냥 든든히 있어 주시고 항상 나를 응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덕에 내가 곳곳이 잘살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믿어 주고 지지해 주는 동생들 덕에 나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물론 나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이것은 그들이 있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 속이 꽉 차는 것 같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든다.

아마 한 10년쯤 뒤에 이 글을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아직 잘 몰랐군’ 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고 이런 가족을 주신 신께 감사할 뿐이다.



4월 6일 국회사무처에 근무하시던 이승철 이사관, 박정호 부이사관께서 퇴임하셨습니다. 퇴임식에서 낭독됐던 송사와 답사를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송사

정들었던 국회사무처를 떠나는 선배님들께……

실로 수십 년의 세월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어 오신
여러 선배님들께 한참 후배인 제가 이렇게 서운함의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어설플 몸짓으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88년 당시
선배님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업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선배님이셨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태평로 시절의 즐거웠던 에피소드들,
여의도 의사당으로 이사 왔을 때의 얘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업적들……

선배님들께서 들려 주셨던 옛날 얘기는
각 직장생활을 시작한 저 같은 새내기 후배들에게는
많은 즐거움이 되었고,
선배님들께서 사랑으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꾸지람들,
그리고 직장생활이 힘들 때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던져 주셨던 도움말들은
제가 지금까지 국회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 국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월(歲月)은 유수(流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도 늘 묵묵히 제 갈 길로 흘러가는 거겠지요.
유수(流水)와 같은 세월(歲月)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십 번 바뀌는 동안에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선배님들께서

이제 정들었던 이곳 여의도를 떠나시게 된 지금,
한참 후배인 제가 여러 선배 · 동료 · 후배들을 대표해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선배님들께서 남겨 놓은 사랑과 지혜는
저희 후배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고,
저희 후배들이 선배님들께 보내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여의도를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 선배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낸 이곳 여의도 생활을 즐겁게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맞아 주는
선후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자랑스럽게 직장을 떠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기록과 문선희

답사

먼저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퇴직자를 대표하여 답사를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7년 전이 어제 같은데 드디어 퇴임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처럼 도도하고, 무심하고, 비정한 것은 없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세월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태평로 시절에 입사하여 어언 37년, 그때는 총각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제 큰딸이 벌써 30대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동안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 세 아이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회공무원' 이라고 하는 직함은 제가 가장 아끼는
명예스러운 직함이었고 깃발이었으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을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은 감사해야 할 일로 가득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주변의 친지들과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여 년간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집사람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은혜에 조금씩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매우 화려합니다.
마치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퇴직자들을 위하여 따로 자리가 마련되고 꽃다발이 놓이고 조명이 있는 자리,
좋은 분들의 축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앞으로 인생에 몇 번이나 이런 자리가 허용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달려온 셈입니다.
이제는 조금 한적한 국도로 가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빨라서 능률적이고 성취의 기쁨도 컸습니다.
그러나 국도는 국도대로의 아름다움과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서고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 교통법규에 순종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가겠습니다.
주변의 풍경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돌아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기, 이것을 저의 남은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겠으며,
과분한 새로운 목표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 중 미완성인 일들을
완성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해 드렸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떠나면서 여러 가지 미안했던 일, 부끄러운 일, 후회되는 점만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분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0. 4. 6.
퇴직공무원 대표 박정호

제 43 회 정 기 총 회



대한속기협회는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평일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임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김덕진 총무재정이사외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회의에서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고흥길 회장을 대신하여 이경식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김덕진 총무재정이사외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09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안기철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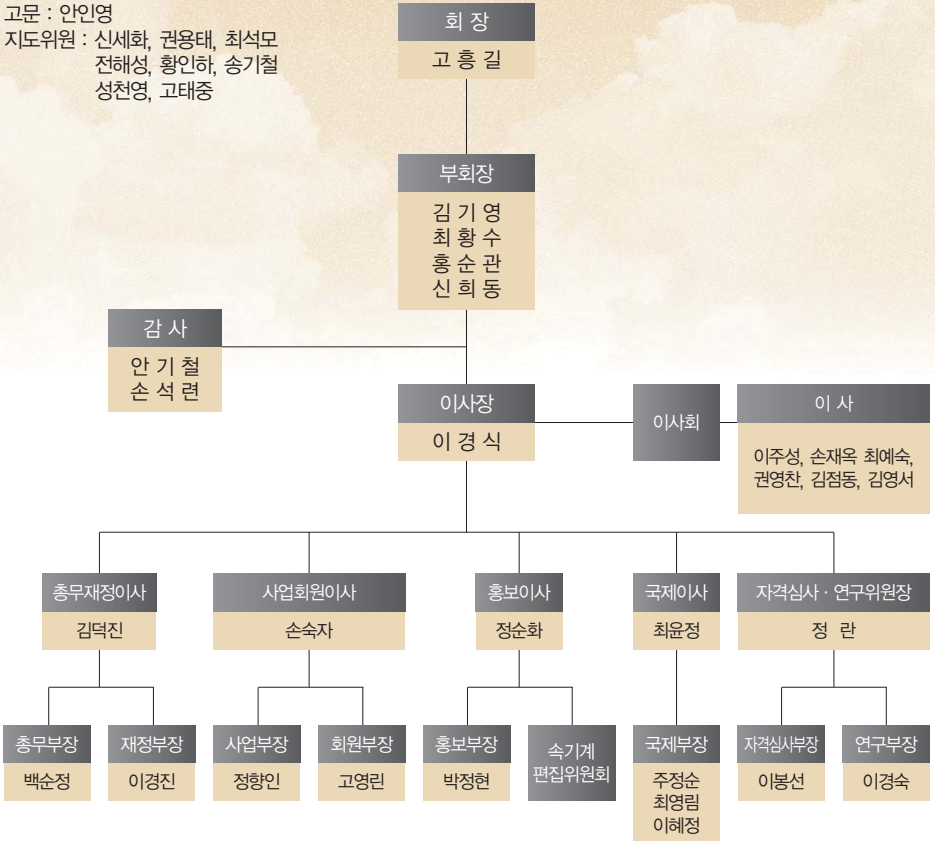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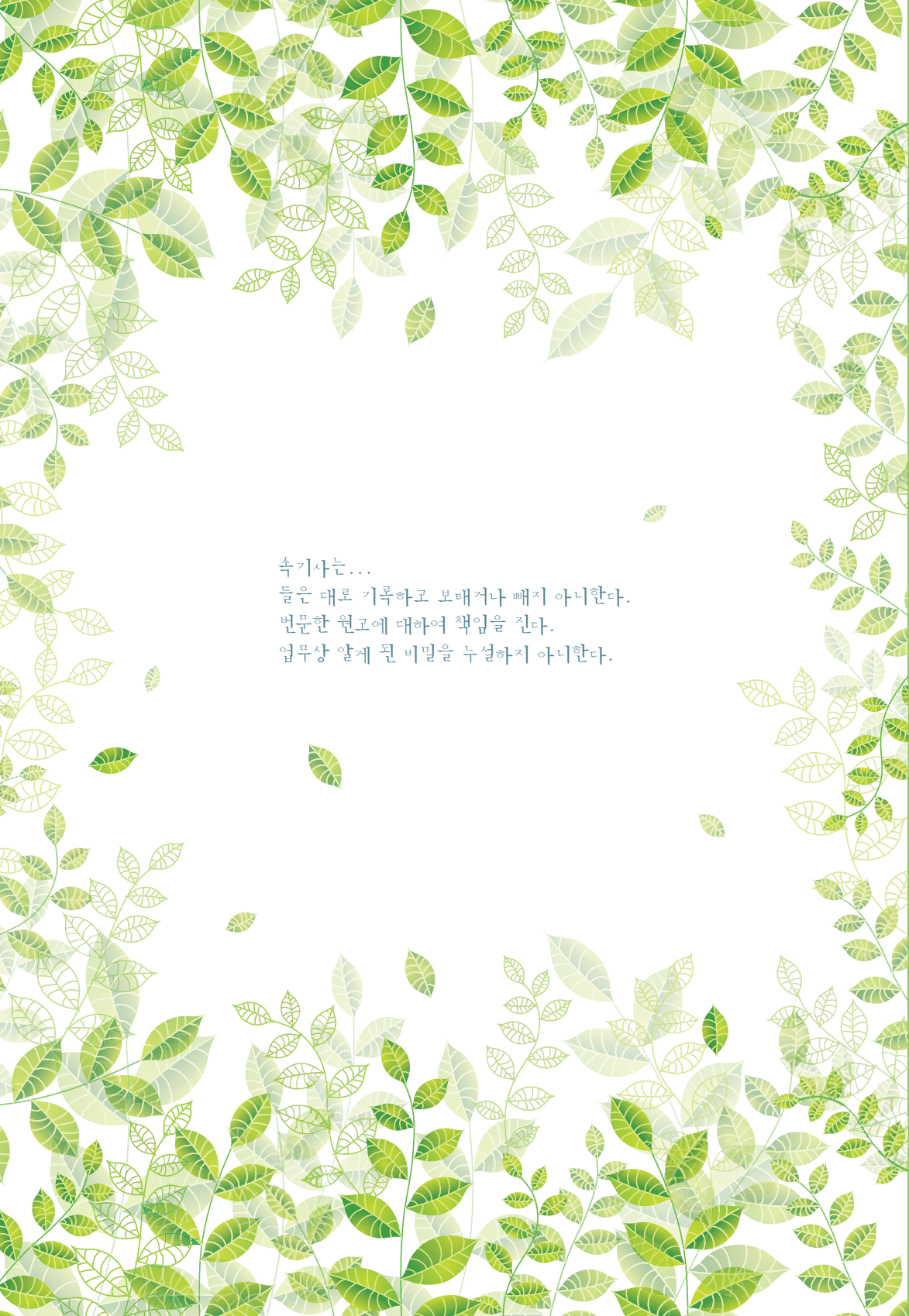
세 번째 부의안건인 기타사항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으로 제17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로 김나영, 김현진, 유운정, 이은영, 장현아, 조미래, 최기예(가다나 순) 씨에 대한 시상이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3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협회 임원 및 기구표

고문 : 안인영
 지도위원 : 신세화, 권용태, 최석모
 전해성, 황인하, 송기철
 성천영, 고태중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편집후기

우리 팀이 벌써 두 번째 속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순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른다더니 어영부영 46호 속기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맡은 홍보부장으로서는 내는 속기계라 정말
잘해 보고 싶었는데 출산에 임박해서 내놓는 속기계라 그냥 나오기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일을 끝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아쉬움은 성격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 때문일까요.

정현*

'기자' 라는 타이틀을 단 후 네 번째 속기계를 맞습니다. 여섯 해 전 속기계를 통해서는 늘
생동하는 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신입의 설레는 마음을 쭉스럽게 고백했습니다. 10년쯤
거슬러 오른 시간에는 前 직장에서 국회를 양망하며 처음 만났던 속기계가 있습니다.
뒀날, '여러분 안녕히' 라는 송별사를 전하게 된다면 그곳은 아마도 이곳이겠지라는 생각에
다다르니 늘 버겁고, 더러는 귀찮고, 아주 가끔은 신나던 '기자' 라는 호칭이 참으로 소중한게
다가옵니다.

초롱*



www.steno.or.kr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편안하게 일에 임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었던 해라서 그런가 봅니다.
새로 되신 박 모 홍보부장님이 많이 고생하신 데 물어갑니다. ^^
더 좋은 속기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

어느새 '홍보부' 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후기를 씁니다.
그런데 홍보부라는 이름으로 후기만 쓰는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은 여전하네요.
내년에는.. 힘이 되는 부원이 되겠습니다 ^^;

지영*

작년 편집후기에는 당돌하게도 '감 잡아가는 모습 기대해 달라!' 라고 썼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편집후기를 쓰는 이 순간이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만큼 되기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디 만든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 봅니다
홍보부장님, 순산 축하드려요!! ^^

나영*

투 고 를 바 람 니 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 - 3086, 3186

홈페이지 www.steno.or.kr

이 메 일 foxy76@assembly.go.kr

내 용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납입안내

회비 1년분 20,000원 (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곳

회비 농협 301-0052-3315-71 이경진 (협회 재정부장)
협회발전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46호 速記界

발 행 _ 2010년 7월 20일

발행인 _ 고흥길

발행처 _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편집인 _ 정순화

기 자 _ 박정현, 제신지, 권초롱, 기자영, 김나영

디자인 · 인쇄 _ 경성문화사(02-786-2999)

전 화 _ 02)788-2371~6

팩 스 _ 02)788-3386, 3387

주소 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_ <http://www.steno.or.kr>

비매품

